

성도의 벗 8

1972



J. HARTZOG

영감의 메시지



에스·딜워스 영 회장
철심인 제일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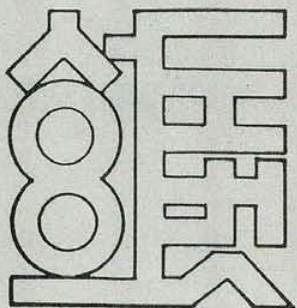
육신의 부진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한도 내에서 세상적인 이익을 자녀에게
중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
타내 줍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적인 발
전은 물론 구원과 승영과 영생까지도 주
심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예수
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는 복음
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기적에 대한
응시자 뿐만이 아니라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 기회에 대해 희희의 노래를 드립니
다. 그 계획은 매우 간단하나 웅장합니
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로 받아들이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믿
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2.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의 손
으로 침례를 받고 성약을 맺는다. 침례
란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을 상징한다.
3. 권능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성
의 은사를 받는다.
4. 성 신권을 받고 이를 존중한다.
5.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순서

영감의 메시지

- 엔 엘튼 태너 1 기도의 중요성과 효력
- 매리온 지 롭니 4 "빛이 비취되"
- 마크 이 피터슨 7 구원의 원리; 정직
- 리그랜드 리차즈 10 복천년의 기초를 놓음
- 제임스 에이 칼러모어 14 고백과 죄를 버림; 참된 회개의 요소
- 데오도르 엠 버튼 17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 살로트 스티븐슨 21 길 잃은 새끼 고양이
- 앤 식스타드 22 믿는 용기
- 마벨 존스 개넷 24 기도문
- 매리 프래트 패리쉬 26 새로 지은집
- 에이 데오도르 터틀 29 정책 및 절차
- 레온 알 하트슨 30 사소한 결정
- 32 유일 무이한 인물; 요셉 스미스
- 38 질문과 대답
- 엔델 비 존슨 42 내 생애가 바뀔날



제 8 권 제 8 호
1972년 8 월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2년 8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85호
편집겸 발행인 : 엘 에드워드 부라운

번역 : 한국 번역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중로구 정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1권 100원
1년분 국내 80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송료포함)

- **대관장단**
해롤드 비이 리
엔 엘튼 태너
매리온 지 롭니
-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에즈라 태프트 밴슨
마크 이 피터슨
앨버트 알 스탠플리
매리온 지 롭니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이 부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골든 비이 힝크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맥커
앨빈 제이 애쉬튼

표지 설명 : 이번 달에는 특별히 교회
어린이를 위한 그림을 처음으로 실었다
제리 하스트가 그린 이 그림은 영어로
된 어린이용 교회 잡지인 "후렌드"
에 최초로 실린 적이 있다. 표지의 주제를
설명하는 기사로 엔 엘튼 태너 부대
장이 1페이지에 쓰신 "기도의 중요성과
효력"이란 글을 참조하라.

주님께서서는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교성 68:28 참조) 자녀들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시며, 그를 믿는 신앙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힘과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인도를 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자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서 자녀를 가르쳐야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도의 효력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를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위안과 힘과 인도를 받으려고 주님에게 의지하고 그에 관해서 좀더 알려고 하는 축복을 어린이로부터 빼앗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들은 그들이 받을 축복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께서 고쳐 준 열 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감사를 표하려 왔을 때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눅 17:17~18) 감사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도 매우 큼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인식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고 궁핍한 자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애통해 하는 자를 위해 위안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하며 이

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서는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며,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저녁 가족 기도회에서 기도를 막 끝냈는데 딸 아이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 더 많은 축복을 간구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즐기는 이 축복들에 합당하게 되도록 부탁하고 그러한 축복들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 없이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합당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며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번창해 간다고 느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은 오히려 보여준 바와 같이 참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욥19:25)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잘 우리의 요구를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과 우리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그의 뜻을 받아 들이도록 배워야 하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한 일은 결국 우리의 이익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백혈구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가진 내 딸과 그의 남편의 태도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 아이가 2년 이상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 젊은 부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이 때문에 얼마나 자주 신전을 방문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으로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받아 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말한 기간보다는 훨씬 오래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부모들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보살필 수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이 합당하게 살아서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그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바라는 것만큼 진척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실망을 하게 되나 그때에 우리는 은밀히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가 받은 축복을 하나 하나 들면서 이러한 것을 감사하고 다시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되도록 간구하면 큰 위안과 용기와 힘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과 여러분이 받은 많은 축복을 세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안다면 여러분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거나 기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로서 간구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간구하였으며 그들의 위대성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더욱 증대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주님께 간구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며 대개는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찾아 가야 할 길이 없다는 것을 느껴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혜와 내 주위의 것만으로는 하루의 일을 다 처리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신기를 발명한 사무엘 에프 비 모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길을 분명히 모를 때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빛과 이해를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궤도를 선회하면서 우주인 골든 쿠퍼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날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많은 것을 보면서 이곳에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고 위대한 사람이 한 말이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전해진 예는 무수히 많으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문학 작품을 창조해 주기도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 가자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하는 법과 그 이유를 배운 사람은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는 매우 책임있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소를 하는듯이 말하고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년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어 가면서 나는 우리가 모두 도움과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책임을 느끼게 해 주는 우리가 가진 직분의 중요성에 따라 우리가 갖는 책임도 증가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겸손하면 할수록 사귀거나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다 큰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원한다면 주님의 영이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날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걸어야 할 눈앞의 장래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여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취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한복음 1:5)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이 성구는 전 유엔 총회 의장이던 찰스 에이취 마리크 박사가 쓴 성명서를 읽고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성명서에서 오늘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참되고 보편적인 메시지, 위대하고 놀랄 만한 것의 시현, 영웅적인 사명에의 부름이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은 최후의 전 반적인 심판의 양상을 띄고 있다. 인간의 목숨, 인간의 가치, 인간의 문화, 인간이 속해 있는 모든 문명의 힘이 점점 도외시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말일일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 없애도 그의 자녀들만은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말한다.”(연설집[하퍼스 앤드 로우, 1964년] 42페이지에서 인용)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분석하고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자신 가운데서 겪는 고난이란 적당한 인도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들을 들으려는 마음을 닫아버린 데서 기인한다고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이야기를

“빛이 비취니”

매리온 지 롬니 부대장관
대관장단 제2보좌

나누는 목적은 오늘날과 같은 고난이 많은 세상에도 근 140여년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진리로 이끌어 준 빛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빛이란 이를 따르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도록 약속된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상황을 미리 보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걸을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그는 우리가 잊지 않도록 성경(마 24 참조), 값진 진주(요셉 스미스1), 교리와 성약 등에 나누어서 기록으로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매우 뜻깊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는 도중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전 건물의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언을 듣고 제자들은 그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

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마 24:3)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날과 미래의 복리에 관련하여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과 그의 재림의 징조에 관해 여러분과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 빛이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리니, 이 빛은 나의 충만한 복음이 되리라.”(교성 45:28)

오늘날에 관한 이 예언은 1820년 봄에 하나님과 아들이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로써 더욱 굳혀졌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던 직후 “충만한 [그리스도의]복음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건은 “이방인의 시대를 나았으니 즉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는 지상에 있는 비 유대인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정의 시대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구세주의 말씀을



나님을 저주하며 죽는 자들도 있으리라.

“각처에 지진과 많은 황폐가 있으리라.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게 대적하며 짐을 들어 서로 치며 죽이리라 하였더라.

“나 주가 이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하자 저들은 근심하더라.

“이에 내가 저들에게 이르기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에는 너희와 맺은 약속이 성취되는 줄 알게 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5 : 31~35)

이러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리라는 말에 이어 예수는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을 제자들에게 계속하셨습니다.

“빛이 그 광채를 발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 줄 비유 같이 되리라.

“곧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나니, 너희 눈으로 보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여 잎이 아직도 연하면 여름이 가까웠다 말하는도다.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그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그 때에 때가 가까워움을 알리라.

“나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오시는 큰 날 곧 인자가 오시는 징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으리니,

“저들은 징조와 기이한 일을 보리라. 이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저들에게 징조가 나타나 보일 것임이니라.”

“또 저들은 피와 불과 연기를 보리라.”(교성 45 : 36~41)

우리는 이미 이러한 징조를 목격하였으며 또 다른 것들도 이후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두워질 것이요, 달은 피빛으로 변할 것이요, 별들은 하늘에서 떨

어지리라.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곳에 모이리라

“그 때에 저들은 나를 찾으리니, 보라, 내가 오리라. 저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나를 보리라. 무릇 마음을 다하여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찢리워 버림 받으리라.”(교성 45 : 42~44)

그렇지만 의로운 자는 찢리워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팔이 떨어지기 전에 한 천사가 나팔을 불리니, 잠자던 성도들이 구름 속에 있는 나를 찾으러 나아오리라.

“그런고로 너희가 화평 중에 잠자면 복이 있나니,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나의 존재를 아는 것 같이 그 때에 너희는 내게 나아와 너희 영육이 살게 되며 너희 구속이 완전하게 되리라. 또 성도들은 땅의 사방으로부터 나아오리라.”(교성 45 : 45~46)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든지 혹은 그때까지 살더라도 진실하고 성실하다면 그와 함께 거하게 되고 그의 오심을 기뻐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자가 그에게 가고, 그가 오실 때 의롭게 살았던 자가 땅의 사방으로부터 그에게 가면,

“그 때에 주의 팔이 여러 국민 위에 미치리라.

“그 때에 주께서 이 산 위에 발을 디디시리니 산은 둘로 갈라지며 땅은 흔들려 이리저리 요동할 것이요, 여러 하늘도 진동하리라.

“또 주께서 음성을 발하시리니, 온 땅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라. 땅의 국민들이 애통할 것이요, 지금까지 웃던 자들이 애통할 것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 빛이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리니, 이 빛은 나의 충만한 복음이 되리라.

“그러나 저들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빛을 깨닫지 못함이요, 인간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내게서 돌이키는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45 : 28~29)

오늘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 들였다가 이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 겪고 있는 것은 우리를 이끄는 진리의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빛(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나로부터 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대에 사람들이 있어 자기들을 휩쓸어 가는 징벌을 보기까지는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이는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있어 움직이지 아니 하려니와 악인 중에는 소리를 높여 하

요, 지금까지 웃던 자들이 자기들의 어리석었음을 깨달으리라.

“재앙이 조롱하는 자들을 뒤덮을 것이요, 조소하는 자들은 불타 없어질 것이요, 악을 바라고 기다리던 자들은 잘리워 불속에 던지우리라. (교성 45: 47~50)

“또 사관은 묶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를 얻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가운데 오는 그 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이야기한 비유가 성취되리라.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 들이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리워 불 속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딜 것이요, (교성 45: 55~57)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 들인 자”란 복음을 듣고서 이를 받아 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음은 물론 그후에도 그렇게 살아서 속임을 받지 않을 만큼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환했거나 그 때까지 살았거나 간에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번성하여 강하여지고 그 자녀들은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께서 저들의 왕과 입법자가 되실 것임이라.” (교성 45: 58~59)

예수의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받는 고난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 주는데, 바로 이것이 말리크 박사로 하여금 우리 문명의 장래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해 준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피로움에 싸인 암흑의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 줍니다.

예언자 요셉을 통해 회복된 복음은 훌륭한 박사가 오래 갈구하던 “위대하고 놀랄 만한 시현”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웅적인 사명에의 부름”이였습니다. 그것은 “참되고 보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훌륭한 박사가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최후의 전반적인 심판의 양상을 띄고 있다.”고 말한 그의 결론을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또한

“지금 이 말일일 것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참으로 자기의 선택한 자녀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경전의 진실함에 대하여 나는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임을 알며 그는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나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많은 표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며 곧 닥쳐 올 징조도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의 권능 즉 신권이 지금 지상에 있습니다. 그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물 7: 22)

이러한 사실을 나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증거합니다. 아멘



구원의 원리 정직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윤희

1972년 8 월호
영광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에서 “우리는 정직을 믿는다.”(신앙개조 13조)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정책상의 문제로서 정직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직이란 하나님 왕국에서 필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정직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부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정직하지 않고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부도덕을 꾸짖으실 것처럼 부정직의 대표적인 형태인 위선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는 다음에 올 지옥의 세상에는 부정직한 사람이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주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거짓말쟁이나 속이는 자나 위선자는 그의 왕국에서 거할 수 없습니다.

부정직이란 이기심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이기심이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무질서의 요인이며 인간이 서로 보이는 비행이란 수많은 사람을 슬프게 해 줍니다.

만일 모든 인류가 정직하였다

면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군대가 필요없었을 것이며 경찰이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 사이에는 범죄가 없고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고 폭력 행위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할 필요도 없고, 여성을 편력하는 남편이나 불성실한 아내가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부자간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며 청소년 범죄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에서 거짓말이나 속임수 보다 더 널리 퍼진 악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청소년을 마약에 빠지게 유혹하는 것은 마약 상용자들의 거짓말이며 소녀를 유혹하여 순결을 짓밟는 것은 유혹자의 거짓말입니다.

속임수 거래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염치없는 상인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부자간에 세대 차이를 조장하는 것은 자녀나 혹은 부모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위선자를 만드는 것은 거짓을 되풀이 하는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것은 그들이 한 거짓말 때문이며 수표를 위조하는 것은 횡령자의 거짓된 생각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회생시키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온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웃 친구를 이용하거나 조롱하거나 고의로 해치는 사람은 부정

직한 사람입니다.

시험 결혼의 형태로 혼전 성관계를 가르쳐서 소녀들로 하여금 순결을 잃게 하는 것은 이를 가르치는 자의 거짓된 의도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진난만하거나 무디므로 그의 말을 받아 들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 산 꼭대기에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14)고 하신 말씀을 잘 알면서 혼전 성관계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선 그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겠습니까?

아내를 심하게 꾸짖고 자녀를 무시하며 가정에서 야수와 같은 사람이 주일학교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거나 합창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주님의 성찬의 상징물을 는다는 것은 위선을 가린 거짓된 행위입니다.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소년과 어울려 죄의 생활 속을 헤매이면서 부모를 속이는 것은 그녀의 거짓 때문입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를 믿기 때문에 악마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하고 속이고 오해하려는 사람들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경전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6 : 16~19)

다음에서 다시 볼 성구는 거짓과 속임수가 뒤따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켜 주리라고 말한 욱욕의 가증한 죄를 나타내 줍니다. 주님께서서는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인간이 고통을 당할 죄의 세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마술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음탕한 자요, 거짓을 사랑하며 조작해 내는 자니라.

“이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들은 영원한 불로 복수 당하는 자니라.”

“이들은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 때가 충만하게 될 때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받아들여 굴복시키사 자기의 사업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고통을 겪을 자니라.” (교리와 성약 76 : 103~106)

대부분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마음속에서부터 진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그의 계명을 지켰는가를 스스로 물어 봄으로써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의 이름을 받들기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크리

스찬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거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은 거짓된 마음이나 행동으로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선 속에는 의로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에는 선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깨끗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부정직한 습관에 빠지는 것은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반 그리스도적이 된다는 것은 그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며 그에게 불복하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멀리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멸을 초래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신화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적인 개념을 향상시키고 강화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은 아무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그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온갖 반대나 그 이론보다 너무나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인은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달성의 시대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탐험이나 과학의 업적이나 인간이 달에 가는 일등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연에는 정확성이 따르지 않고 자연 발생적인 현상에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정확성이나 확실성이 모두 있으니, 이는 위대한 과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고대의 시편 작자인 다윗의 말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 의 것이로다”(시 24 참조)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생활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기의 무분별한 행위의 희생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완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국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며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사실인 것입니다. 마음을 반만 쏟는다는 것은 주님께 염치 없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지 못해 이를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성 58 : 29 참조)

우리가 진실로 크리스찬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 : 23~24)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여러분께서는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계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마 6:5) 그는 또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시 101:7)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며 또한 같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또한 그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출 20:16~17 참조)

현대의 계시에서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성 42:21)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의 자세를 역설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욕하거나 해치지 말라.(교성 42:27)

모든 부정직한 형태로 인간을 이끄는 탐욕을 피하도록 높은 차원의 길을 택 하라고 그는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대신에 참으로 선량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 주는 것을 배워야 하며, 불행한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고 진실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 ...”(교성 42:30~31)

구세주는 죄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그 무거운 짐을 갓세마네 동산에서 질머 지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사는 생활이 비참한 생활임을 아셨고 악이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벼운 짐을 지게 하였고 기쁨과 위안과 만족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진실로 회개를 하고 그의 사랑과 용서와 순종의 멍에를 받아 들인다면 그는 우리를 받아 들이실 것입니다.

고대의 제자인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7~9)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요한일서 2:10~11)

우리는 또한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과 같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신앙을 결합하여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의 행함은 진리의 행함이 되게 노력해야 합니다. (약 2:17~18 참조)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구세주는 진리의 화신입니다. 그는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진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으며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나의 간증입니다. 아멘

*** **



북천년의 기초를 놓음



1972년 8 월호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오늘 저녁 다시 성실한 말 일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4:4)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속된 이번 대회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참으로 배블리 영생의 떡을 먹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준 놀라운 권고와 영감을 받았읍니다.

빵은 육신을 배블리 해 주나 영을 풍족하게 해 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훌륭한 노래를 들려 주신 릭스 대학에서 온 합창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몇주 전에 그 대학에서 있었던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으며, 우리의 젊은이를 위해 교회의 교육 제도나 그 기구나 교육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필요한 기초와 우리가 사는 목적과 그 이유 등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신전이 건립되면 100년 전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놓였을 때 그 넓이는 16피트가 되었다고 하며, 한때 부리감 영 대관장님도 오셔서 석공이 일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는 거대한 화강암을 기초로 놓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천년 동안 굳건

히 서 있을 신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북천년 동안 굳건히 설 수 있게 자신의 삶의 기초를 놓고 타인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모임에서 구세주의 재림에 관해 예언자나 구세주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설명하신 톰니 형제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에게 헤아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진 확실한 길을 따르려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는 받모 섬에 유배당하였고 그곳에서 천국 전쟁에서부터 사탄이 추방된 때와 최후의 장면까지 하늘의 천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펼쳐 있고 죽는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요 입으로 한 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 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20:12~14참조)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

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요한계시록 20:4~6)

천년 동안 굳건히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스스로를 준비하였다고 만족스럽게 나설 만큼 성령의 감화를 받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전이 일 천년 동안 서 있는 16피트의 기초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는 헤아릴 수 없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마 7:14)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좁고 험착한 길 위에서 있나 살려야 합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24~27)



우리가 삶의 집을 지을 기초는 일 천년간 굳건히 서 있을 거룩한 신전을 짓는데 놓을 기초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몇년 전 내가 남부에서 선교부장을 하고 있을 때 조지아주 쿼트먼이라는 곳에서 결혼 성약과 가족 단위의 영원성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루론 에스 호후웰스 형제가 쓴 “사람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는가?”(테저렛 출판사, 1932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세계에 퍼져 있는 주요한 교회와 결혼 성약의 영원성을 포함한 주요한 교리에 대한 그들의 설명이나 입장을 도표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믿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으며 아직도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천박한 생각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상에 아담을 세우시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2:18)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필을 주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 2:24)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합치신 것을 여러분께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말씀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마19:5~6)

그날 모임이 끝나고 나는 문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한 분이 찾아 와서 자기는 침례교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제가 잘못 말한 점이라도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아닙니

다. 리차즈 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모두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믿고 있지 않군요.”하며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우리 몰몬교 장로가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그런 진리를 듣고 싶어할텐데요”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찾아 뵈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4개월만에 나는 지부대회를 갖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내려 갔는데 나는 선교부장이었으므로 내가 온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로 걸어 들어 가는데 그전에 만났던 침례교 목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지난번의 제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군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리차즈 씨 저는 그후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머지를 마저 다 듣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원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알기에는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결혼 성약의 영원성을 믿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왔을 때 아내와 자녀로부터 떨어지고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영과 육신의 완전한 파멸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상에서 여러분을 함께 묶어 준 사랑이 계속되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유괴 사건을 종종 듣게 됩니다. 1932년이라고 기억하는데 린드버그 대령의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당했고 범인은 그의 몸값으로 50000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돌려준다면 기꺼이 그 액수의 돈을 지

린드버그, 찰스 오저스터스, 미국 비행가, (1902~)

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 매리온 지 롬니 형제는 부활할 때 자녀들은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는 주님의 계시를 인용하셨습니다. (교성 45 : 58 참조)

일찌기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자녀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가 홀랜드에서 선교부장으로 있는 동안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3년 반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내는 천사가 그 어린 영을 자기에게 보내 주었다고 수차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잃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녀가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쁨을 갖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녀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딸이 되고 우리는 그녀가 죄 없이 자라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종종 이러한 선택된 영들은 지상에 있는 다른 어린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부름에 합당한 자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갖기 전에 네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어느 스테이크에 부름을 받아 먼저 내려 갔고 아들

아이는 고등학교원 한분과 그의 자녀와 함께 나중에 오게 되었는데 이 때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애에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오른 기분으로 즉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유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고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귀중하고 사랑스럽던 자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때 죽음에서 오는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게 놓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고 구원된 자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축복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쌓고, 우리와 사귀는 사람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벡케이 대관장님께서 가정에서의 실패는 어떠한 인생의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좀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면 가정에서의 사랑도 커지며, 사랑이란 다음에 올 영원한 세상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식도 얻게 됩니다.

내가 남부 지방에서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어느 학교 교사가 물문 어린이에게 책을 빌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책이 반납되었을 때 그 속에는 신앙개조를 적은 종이 가 있었고 선생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 선생은 자기 교회의 목사에게 찾아 가서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까?” 하며

물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녀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녀는 폴트 레이크 시에 있는 안내소에 편지를 냈습니다. 교회 안내소에서는 그녀에게 책자를 보였고, 나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선교사가 그녀를 방문했고, 그녀는 곧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쓴 신앙개조를 다시 생각해 보고 (그가 열거하지 못한 중요한 교리는 그외에도 많다.) 그것을 읽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느 교회도 그러한 기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서 나는 신앙개조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예언자 요셉은 하나님과 아들이 각기 다른 분명한 두 인격자라고 가르쳤고 이들은 살과 뼈를 가졌으며, 성신은 영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 이러한 교리를 믿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과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대개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구세주이신 예수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나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바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다른 어느 교회도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믿지 않으며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한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히브리 6:1~2)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다른 어느 교회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권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바울은 그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러한 기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자의 은사, 계시와 시현을 받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을 믿는다. (신앙개조 7조)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물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신앙개조 8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전을 주시고 그의 손에서 두 책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모르고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겔 37:17 참조)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 하날 나

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9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 없이 계시받고 있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오늘날 계시로 인도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 대륙에 시온이 건설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10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며 이사야는 양과 사자가 함께 눕게 될 새 땅과 새 하늘이 있을 날이 오면 우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며 포도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거할 집을 짓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주님의 복된 자손이 되며 우리의 자손도 우리와 함께 될 것입니다. (사 65:17-23, 참조)

마땅히 우리는 거룩한 신전에 놓여 있는 기초와 같은 기초를 놓아야 하며, 그리하여 복천년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 하나와 가족들이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고,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성도의 벗 구독 신청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수 많은 청중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중에 중앙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신권 지도자이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 감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감독을 크게 존경하고 있으며 그 분의 많은 책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와드의 아버지이며 와드의 관리 대제사이며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입니다. (교성 107:74, 76참조) 그가 판단해야 하는 일의 하나는 와드의 회원이 역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교회 의식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지, 혹은 신전 추천서를 써줄 만한 사람 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와드 회원과 상담을 하고 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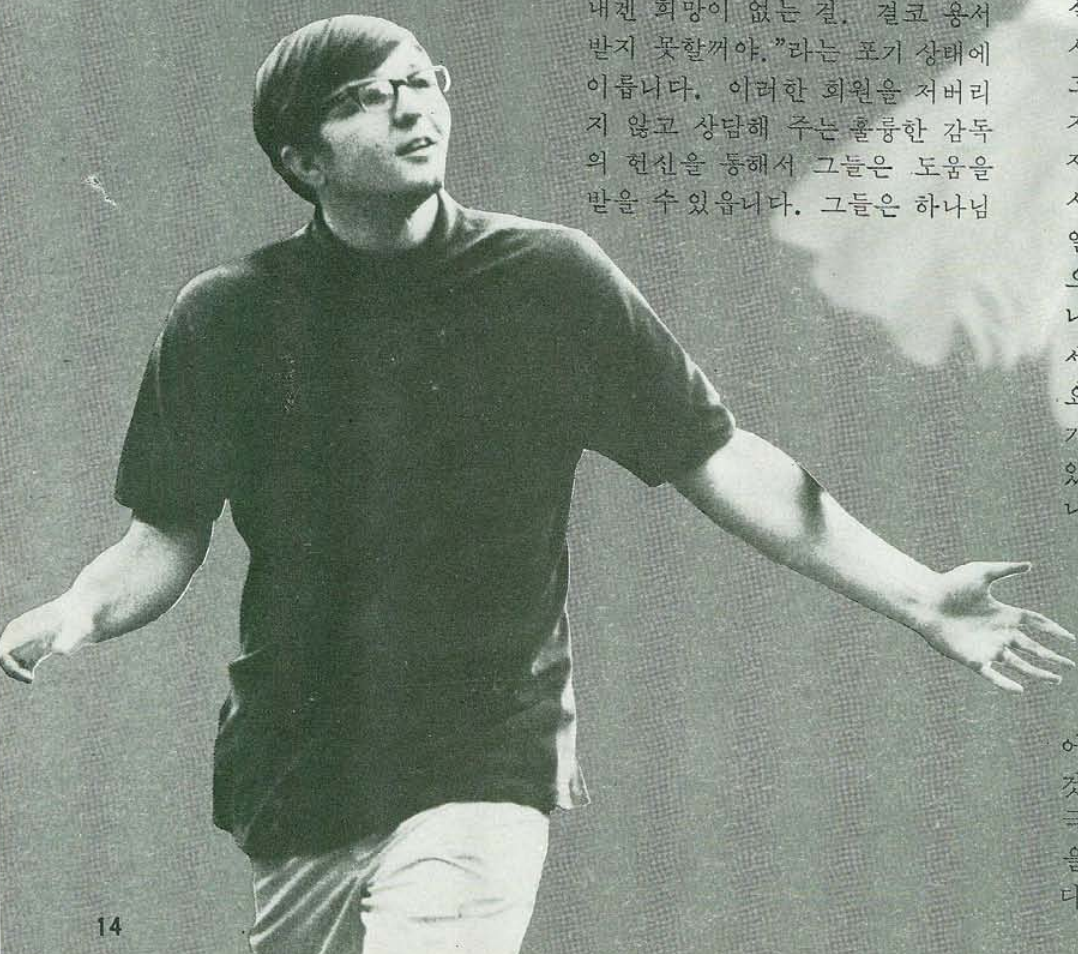
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주며 죄의 고백을 듣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감독의 의무입니다. 불행하게도 위의 역할 중에서 대부분은 회원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죄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버림받았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느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 전체 내의 이러한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약한 순간이나 아마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처지에 있게 되어 실족했던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절망과 죄의식으로 인해 패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점점 자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겐 희망이 없는 걸. 결코 용서받지 못할꺼야."라는 포기 상태에 이릅니다. 이러한 회원을 저버리지 않고 상담해 주는 훌륭한 감독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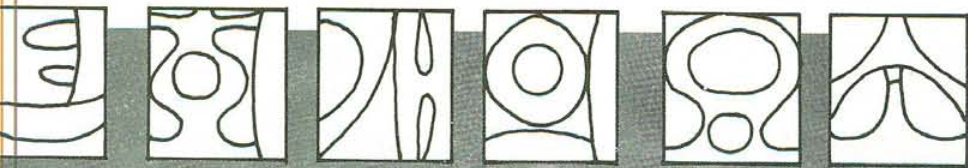
이 자비로우셔서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희망을 가지게 되어 죄로 인해 무거웠던 절망 상태를 밝은 빛으로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던 사람으로부터 어느 감독에게 온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젊은 숙녀는 감독에게 마음을 털어 놓고 훌륭한 면접을 했었던 것입니다. 감독은 그녀에게 모든 걸 다 잃은 것은 아니며 완전히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며칠 후에 그녀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아, 형제님은 저의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런 상태였는지를 모르실 것입니다. 잘못을 보상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으며 형제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길은 형제님께서 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저는 마음 속으로 놀랐고—아니 놀란 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인생은 내가 보고 감각하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것 즉, 해가 지는 것을 보거나 아기가 웃는 것을 듣거나, 두

어린 아이가 사이좋게 놀고 있는 것을 관찰하거나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을 목격하는 것 등을 늘 많이 제공해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어린이의





울음 소리, 아이들의 싸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상을 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나는 꿈도, 예언자의 환희도, 지각의 갑작스런 분열이나, 천사의 방문—하늘의 열림도 모두 원하지 않노라. 다만 내 영혼의 떨 깨임을 없애 주기만을 원하노라”
(작자미상)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을 스펜서 더블유 킴블 사도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죄지은 자의 양심은 참회자가 자기를 돌아다 보면서 그 주함을 보고 죄의 무거움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거의 당황하여 의치듯 할 때 그러한 무게로 인해서 개인을 양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깊은 낙담에 빠지고 자기 처지에 대해 희망을 잃었어도, 신앙 중에 하나님께 자비로운 도움을 의쳐 간구하면 작고 조용하며 영혼에 스며든 듯한 음성이 “네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눅 5:20 참조)고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적 [북크래프트사, 1969년, 344 페이지])

정전에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일서에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귀절도 있습니다. “나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 받으리라.”(교정 1:31-32)

아마도 범죄자의 영혼을 가장 흡족하게 채워 주는 귀절은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노니라.”(교정 58:42)는 말씀일 것입니다.

킴블 회장은 이 일에 대해 설명할 때 몇 가지 논리를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며.....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함이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이며 구원과 승영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죄사함의 기적 344 페이지.)

회개하는 자는 모두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성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귀절은 어사야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캄오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6-7.)

회개하는 것이 늘 쉽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기 죄에 대해 초인간적인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죄를 회개했는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

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과 죄를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음을 깨달아 그것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에는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중대한 죄의 경우에서 단순히 그 행위를 그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어 그것을 상대방과 감독에게 고백하는 것은 훨씬 온당한 일이며 진정한 겸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는 범죄자는 선행을 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으로써 자기가 회개하였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배상도 또한 회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가능한데까지 배상하는 것은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능한데까지 배상해야 하며 특별히 피해자에게 자기의 뉘우침과 개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고백은 먼저 여러분의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고백은 이미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사인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공연히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해를 당한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꾸짖음을 당해야 하고 여러분은 마땅히 받을 전책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부끄러움과 겸손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교정 42:90, 91 참조)

만약 여러분의 행동이 은밀한 가운데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여러분은 은밀한 가운데 상대방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교성 42:92참조)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마 6:6참조) 여러분이 교회에서 있는 것을 방해하거나 교회 내에서의 발전과 역원이 될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주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로 임명하셔서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로 위임받은 감독에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교성 107:74, 76참조) 감독은 그러한 고백을 듣고 비밀리에 정당하고 자비롭게 처리하여야 합니다...고백을 한 다음에는 범죄자는 자기가 회개하였다는 것의 결실을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한 분량만큼의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보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행동으로 끼친 손해를 힘자라는 데까지 보상해야 합니다.”(젊은이와 교회 [데저렛 서적사, 1970] 99페이지)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 진심으로 완전히 용서받기를 갈망하여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회개의 과정을 시작했다면 그는 언제 죄사함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1831년,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신전에서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6...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로서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나 주가 그 죄를 용서하여 주나니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

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 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성 64:7, 9-10)

주님의 이러한 명백한 지시—즉 우리가 모든 범죄자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는 감독이 회원의 죄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즉시 그들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는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팔로 감싸 주며 친절하고 사려깊으며 그들이 자기 행동을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과 이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심도에 따라 “죄를 버릴 시간”을 주어 그동안 교회의 특전을 주기를 거절하는 등의 벌을 가해야 합니다.

어느 형제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 사함은 언제 받습니까?” 그가 “회개할 때 받게 되지요”라고 대답했더니, 질문자는 다시, “회개했는지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마음 속을 드러다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고백하는 순간에 회개하게 될테지만 복음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회개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죄를 버리는 시간은 그 죄의 심각성과 범죄자의 회개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 회원 하나가 중한 도덕적 범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돕고 있던 스테이크 부장에게 대관장단이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참된 회개의 요소이며 가능한 한 도까지 자기가 저지른 것을 배상하도록 해야 하며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따라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흘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앞으로도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교회 지침서에는 중한 죄를 범한 개인은 신전의 특전이나 교회의 모든 특전을 받기 전에 얼마간의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벌이 가해지거나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고생스럽거나, 심지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있을 만큼 자기를 낮추어야 하더라도(마 11:21 참조) 회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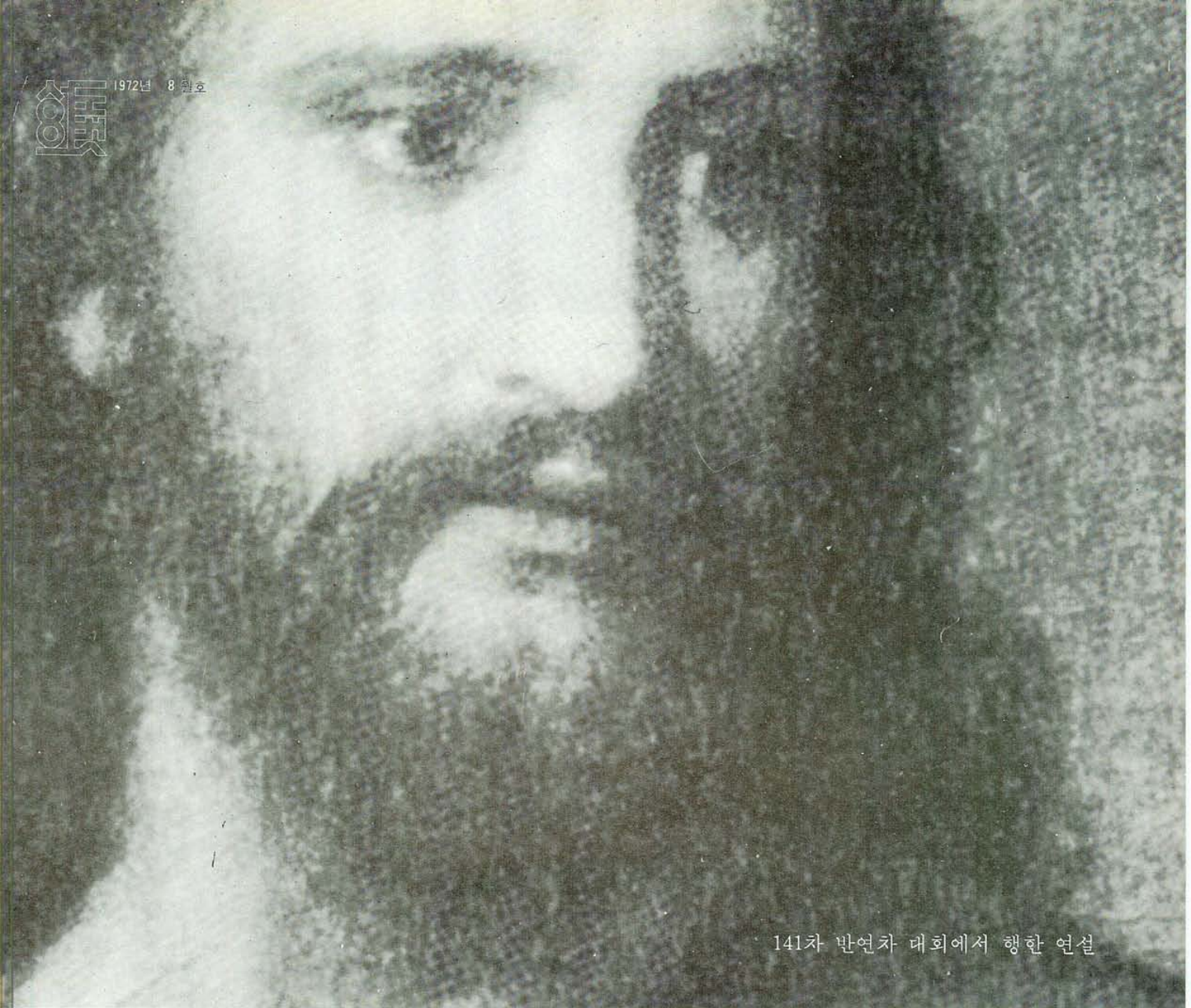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앰올레크의 말에 의하면, “.....저가 이르기를 진실로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구속하려 오시되 죄와 함께 구속하심이 아니요, 죄로부터 구속하시리라고 하셨느니라.

또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이들을 구속할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시라.”(히 5:10-11)

회개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마지막 한 가지 확실성은 이 말 씀입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성 93:1)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길은 멀겠지만 저는 그 길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41차 반연차 대회에서 행한 연설

“여호와 께서 또 가라사대”

데오도르 엠 버튼 장로
십이사도 보조

약 일 개월 전에 나는 대관장단의 명을 받고 교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남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와 그곳 국민들을 보았을 때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초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모든 면에서 개량된 현대적인 시설이 들어 찬 대도시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도시와 같이 교통은 몹시 복잡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팽창되어 가는 국가경제의 요구에 부응해 가기 위해서 급히 세워진 아파트 건물, 사무실, 지하철, 고가도로, 공장 등에

서 역역히 그 면모를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남미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곳에 갔을 때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뜨거운 환영과 대접을 받아서 몇 주 후 내가 그곳을 떠



날 때는 많은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고 형제애가 담뿍 담긴 우정의 포옹을 나누며 작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남미의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미에 있는 나의 친구들은 그곳 사람들이 너무도 물질적인 요구에 얽매어 정신적인 필요는 무시하고 등한히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회원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종교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리에서 위안이나 위로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에 있어서 교회는 정치 활동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나 성직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위 행군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 담당 구역의 성도들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심리학, 정신병학, 사회 과학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신학교에서 훈련된 박식한 사람의 청산유수와 같은 명문이나 마음이 행위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 가득찬 메시지를 전달할 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는 못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러한 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의 교리와 절차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실천되고 있습니다. 교리상의 문제점, 절차상의 방법, 복음 의식의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해 종교 회의나 대회가 자주 소집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스스로 주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하려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의 음성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들 말합니다. 오늘날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요구된 때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도다” 혹은 “아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하고 사방에서 떠들던 소란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신 권능에 찬 음성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와 말을 한 모세나 이사야나 베드로나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도 이 세상 도처에서 이념의 분단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통파시킴으로써 인간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의 제언을 신문이나 잡지나 책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이 야기하는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문

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론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이사야 55 : 7~11)

하나님의 길은 정치적이며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심지어는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전쟁, 폭동, 차별, 고통, 기아 등을 없애 줍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어서 권능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받들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예언자의 인도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말일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그의 왕국을 확립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산에서 초석으로 쓰일 돌을 깨어 내셔서 온 세상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가는 혼란과 동요가 가득찬 말일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리라고 말했습니다. 말라기는 엘리야의 오심과 만물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자인 일라이어스가 다가 올 사건을 대비하여 그가 재림하기 전에 모든 것을 회복하려 보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일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계시리라고 했습니다. (행 3:21)

미리 예언된 이러한 회복은 너무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에 도적”이 온 것 같이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데전 5:2)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 온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옳습니까?”라는 간단한 질문을 하나님께 한 뉴욕 주 팔미라 근처에 살던 어린 요셉 스미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의 경륜 시대가 다가 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셉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만한 예언자가 지상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자 신에게만 대답을 하시는 이외에 인간에게 그러한 대답을 알려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기도를 하기 위하여 숲에 갔을 때 그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기독교회는 하나로 통합된 사회를 가르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알려질 수 없는 미지의 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간단한 기도의 답변으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요셉이 얼마나 놀랐는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한 분이 다른 분을 가르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스미스 2:17)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요셉을 가르쳤고 그는 새로운 복음의 경륜 시대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는 요셉에게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이름을 받들 만한 참된 교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합당한 준비를 하고 신권의 권능을 부여받은 후에 그가 고대의 예언자처럼 인류를 축복해 주고 가르쳐 주는 말일의 살

아 있는 첫 번째 예언자가 되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신권의 열쇠를 천 하늘의 사자들이 지상에 와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의 권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에게 말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권능은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에는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것이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합당한 신권의 절차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시행되던 의식을 재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과거와 똑같은 권능, 은사,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상에 세우셨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나왔을 때는 박식한 학자가 평생을 연구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성품, 능력, 속성 등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와 다른 교회를 구별지어 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간증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토론하기 위하여 박식한 사람들을 불러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권고를 따른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악을 피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신앙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사랑하고 봉사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란 법조문이나 정치적인 이론의 타협으로만은 이룩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방법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과오나 힘의 남용으로 빠지고 맙니다. 평화, 기쁨,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준 삶의 계획을 순종함으로써 옵니다.

나는 과거 3년 동안 미국 서부 해안이나 캐나다에서 경험한 급속도의 교회 발전을 이제 다시 남미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가 텅 비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넘쳐서 장소가 부족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교회를 세우고 있으나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 남미에서는 교회가 주일 이외의 평일에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거의 매일 교회의 건물과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들은 상하회 무대에서는 연극이나 음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세미나리와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가 교회의 교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젊은이를 위한 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매님들이 우정을 나누며 바느질을 배우고 옷을 수선하고 뜨개질을 하는 문테

비디오의 한 데저렛 공장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부라질의 쌍파울로에서는 노소가 모두 세대 차이를 전혀 느끼지 않고 단합하여 체육 경기장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환대를 받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형제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 속으로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상과 욕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라질에서 대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인데 회원들은 서로 어찌나 반가워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지 모임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남미에서 본 사람들 중 가장 잘 웃고 악수를 잘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형제애를 가진 상 파울로의 세 스테이크가 해마다 각기 새로운 개종자가 천여명씩 들어 올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그토록 행복해 하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회복된 복음이 얼마나 강한가를 생각했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의 성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왕가의 혈통을 이어 받은 우리 회원은 다른 남녀들처럼 다투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어딘가 남과 다른 점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할 때 아무도 우리의 성공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의 축복과 재능을 나누

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베드로 전서 2:9~10)

만일 여러분에게서 낙담을 하셨거나,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더 큰 빛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원한다면, 나타내진 이러한 진리를 탐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찾아 내십시오. 예언자의 말씀을 와서 들으십시오.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약된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산을 물려 받고 삶의 참된 목적을 알도록 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은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서로 친절함을 보이고 진리의 원칙을 받아 들임으로써 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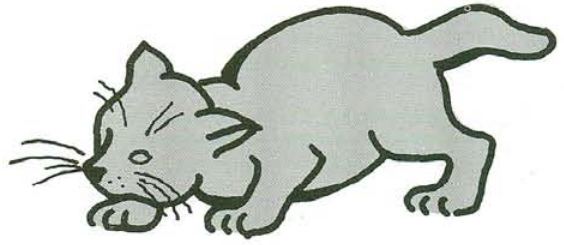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며 우리의 왕이시요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일에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이 지상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벨기세맥 신권이 그의 권능과 함께 다시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참된 예언자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런 개인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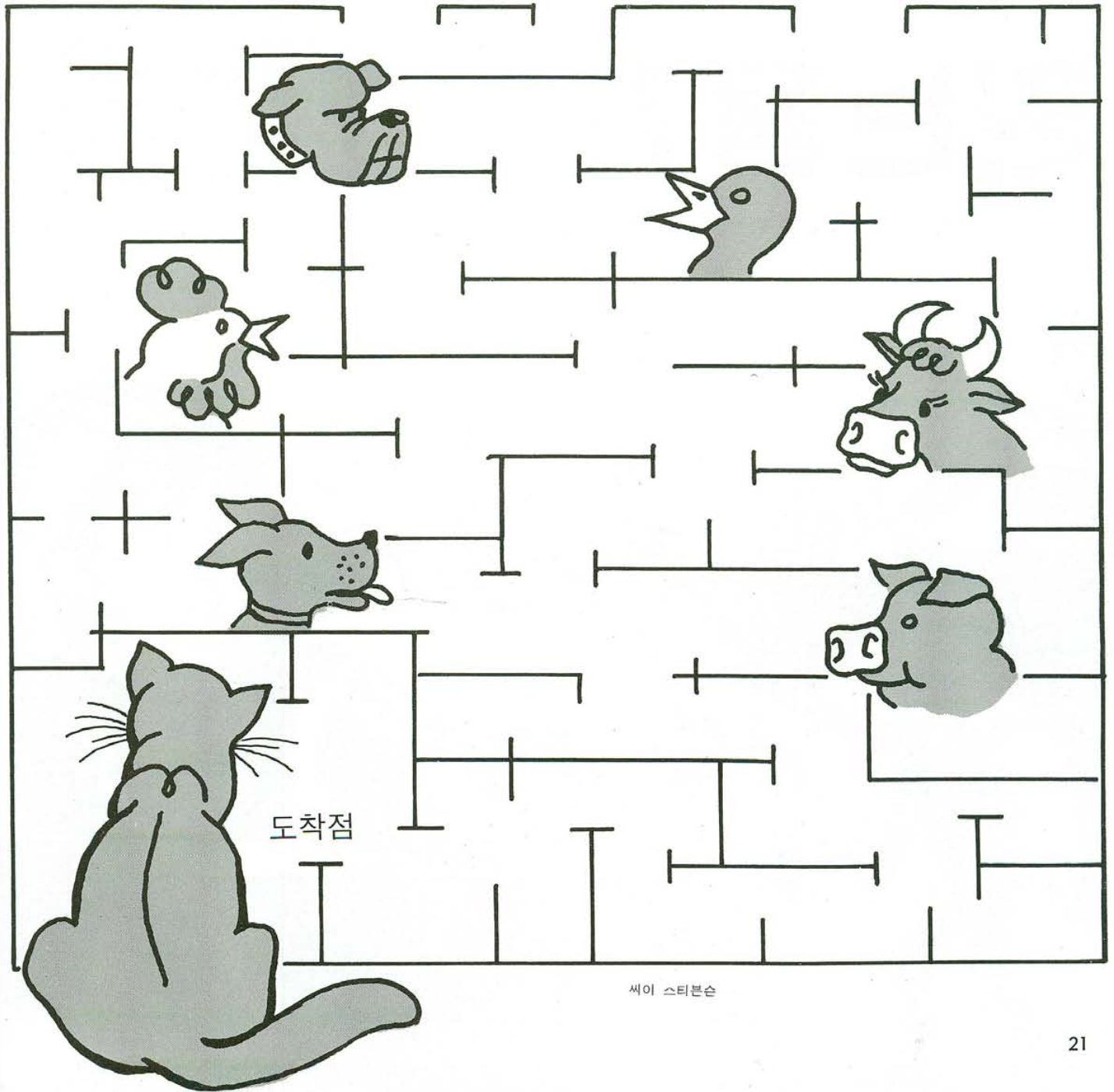
길 잃은 새끼 고양이

살롯트 스티븐슨 작

여러분은 이 새끼 고양이가 다른 동물이 있는 곳을 침범하지 않고 어미 고양이가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출발점



씨이 스티븐슨

핀란드 라모스에 사는 어린 앤더스 요한슨이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을 때는 몹시 추운 주일 아침이었다. 그는 옷을 두껍게 입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별로 개의하지 않고 삼 마일이나 되는 조그마한 집회 장소까지 즐거이 걸어 다녔다. 앤더스는 안식일이 되면 늘 기분이 좋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날라 와서 앤더스의 다리에 맞았다. 또 한 개의 돌이 잇달아서 등에 맞았다. 그는 멈춰 서서 웬일인가를 알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죽시들을 가로 질러 달려 갔다. 조금 전까지도 상쾌했던 감정이 일시에 사라졌다.

단지 내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게 돌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들이 이 마을에 살듯이 나도 몇몇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종교가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 통치 하에 있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루터 교회에 속해 있었다. 앤더스처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주 곤경에 빠지곤 했다. 돌맹이가 실제로 그들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앤더스는 라모스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앤더스가 작은 소년이었을 때쯤 해서 구스타프 발그렌이라는 스웨덴의 청년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 후 곧 그는 러시아 정부에서 일하기 위해 핀란드로 파견되었다. 그렇지만 스웨덴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장로로 성임되어 핀란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침례를 줄 수 있게 되었다. 구스타프는 확실히 핀란

믿는 용기

앤 식스타드 씀 로날드 크로스비 그림



드에 발을 디딘 첫 번째 물몬이었음에 틀림없다.

1875년 말기에 선교사들이 스웨덴에서 핀란드로 보내졌다. 핀란드 정부는 루터교 이외의 교회 활동은 무엇이든지 공공연히 반대했으며 다른 종파의 교리를 설교할 때 일어서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므로 법에 따르기 위해서 핀란드에서 전도하던 선교사들은 복음을 설교할 때는 앉아서 해야 했다.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에게서 온 편지에는 이상한 설교 자세도,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 않다”고 보고되어 있다.

핀란드의 극소수 사람만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 감히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자주 박해를 받았고 재판을 받았으며 법이 정한 극심한 벌을 받아야 했다. 교회 회원이 된 어떤 사람은 28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고 독방에 감금되어 그동안 줄곧 빵과 물만 조금씩 공급 받기도 했다.

1880년 여름에 스웨덴에서 선교사 몇 명이 핀란드 서쪽 해변에서 십오 마일 떨어진 라모스 섬으로 갔다. 정부의 방해로 그들은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앤더스와 그의 아내는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 얼마 동안은 그들이 그 섬내의 유일한 회원이었다.

앤더스는 곧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했고 그래서 친구와 친척을 집에 초대하여 훌륭한 새 종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체부였던 그의 장인과 몇 명의 이웃이 믿게 되어 침례를 받고자 했다.

“내가 당신들을 침례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군요. 스웨덴에 계신 선교부장에게 가서 내가 침례를 줄 권능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 보아야겠어요” 하고 앤더스는 대답했다.

스웨덴까지 배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에게서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돈을 모금해 주었고 그리하여 그는 스웨덴에서 장로로 성임되었다.

1946년 7월에 라모스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핀란드가 재헌납 되었고, 1947년에 이 나라는 선교부를 세우고자 하는 종파들에게 대하여 문호를 개방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핀란드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1972년 현재 그곳에는 23개의 지부가 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앤더스의 용기로 인해서 그의 자녀와 손자들, 친구와 이웃은 현재 대부분 다 교회 회원이다. 핀란드 선교부의 초대 지부장은 앤더스 요한슨 스트롬버그의 손자인 안젤름 스트롬버그였으며, 스트롬버그 가에서는 이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앤더스 요한슨 스트롬버그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되었다. 圖



기드온

기드온은 군중 위에 우뚝 섰다. 그는 거대한 체구를 가졌고 아주 강했다. 그의 음성은 립하이의 모든 백성과 암몬, 그리고 암몬의 백성에게까지 울렸다. 립하이 왕이 레이멘인의 속박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기 위해 소집했기 때문에 다수의 군중이 모여 들었다. “왕이시여”하고 기드온은 말했다. “만약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에도 소인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를 갈망하며 또한 이 백성을 속박에서 구하기를 심히 원하나이다.”(모사이야서 22:4참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기드온에게 집중되었다. 립하이 백성들은 얼마나 오랜 동안 자유를 갈구했는가! 레이멘인들은 나날이 잔인해져서 그들을 때리며 짐승처럼 취급하며 중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다.

립하이 왕은 기드온의 말을 무척 듣고 싶어했다. 립하이는 레이멘인에게 잡혀 포로가 된 적도 있었다. 립하이는 사악한 노아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며 백성을 사랑했다. 이제 그는 기드온이 한때 노아왕을 살해하겠다고 맹세했으나 그때 목숨을 살려 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했다. 립하이는 자기 백성과 레이멘인 사이에 이년 동안 평화로웠던 것에 감사했다.

그렇지만 사악한 노아 왕의 제사 몇명은 광야에 숨어서 레이멘인 소녀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바라 보았다. 그들은 스물 네명을 잡아서 광야로 멀리 보냈다. 레이멘인들은 립하이 백성이 소녀를 훔친 것을 비난했으며 립하이 왕은 백성 중에서 죄 있는 자들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기드온은 “청컨대 백성 중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나이다. 사악한 제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이 레이멘인의 딸들을 훔쳐 갔을 것입니다.” 립하이 왕은

기드온의 말대로 했다. 기드온의 말이 옳았다.

암몬과 그의 백성들도 기드온의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암몬은 기드온이 립하이 왕에게 헌신적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암몬은 수년 전에 그곳을 여행한 선조 지니프를 찾기 위해 제이라헤틀라 땅에서 니파이 땅으로 왔던 것이다. 암몬은 립하이 왕과 그의 백성이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으나 속박된 것을 보고 슬퍼했다. 이렇게 해서 그와 그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말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립하이 왕은 기드온에게 말해도 좋다고 승락했다.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다. “성 뒤편에 성벽 위로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레이멘 보초가 있어도 밤에는 술에 취해 버리니 관찰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양떼와 가축을 이끌고 함께 모여 야경을 타서 광야로 떠나게 하십시오. 소인이 당신의 분부대로 마지막 술을 조공으로 바치면 그들이 술에 취할 것이고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을 동안 초막의 왼쪽으로 난 비밀 통로로 빠져 나가면 처자와 양떼와 가축을 이끌고 광야로 떠나 갈 수 있으며 사일롬 땅을 돌아 가면 될 것입니다.”

립하이 왕은 기드온의 말에 동의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양떼와 재물을 챙기고 준비했다. 기드온은 레이멘인에게 여분의 술을 선물로 더 보냈으며 그들은 술을 실컷 마시고 곧 잠이 들었다.

그런 다음 립하이 왕의 백성은 밤을 타서 광야를 지나 암몬과 그의 형제들의 인도로 제이라헤틀라로 갔다. 그리고 제이라헤틀라 땅에서 그들은 모사이야의 백성과 합쳤고 기쁜 영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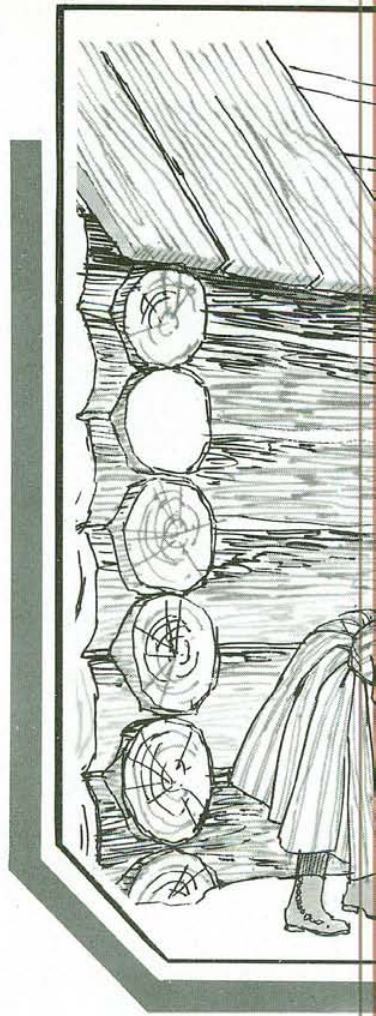
기드온은 자기 백성을 레이멘인에게서 구해낸 것이었다. 緘





1972년 8월호

매리 프래트 패리쉬 버지니아 사전트 그림



토미는 마차 바닥에 깔려 있는 짚을 넣은 요 위에서 돌아 누우면서 조각 이불을 끌어 당겨 귀까지 꼭 뒤집어 썼다. 여느때 같으면 나팔이 울려 퍼졌을 것이고 그도 일어났겠지만 형제들이 가던 그로브에 머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 하루만은 늦게까지 잘 수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나팔 소리가 맑게 울려 토미가 자는 짐마차로 직접 들려 왔다. 재빨리 그는 구두를 신고 코트를 움켜 쥐며 마차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는 텐트에서 나오시는 아버지를 만났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토미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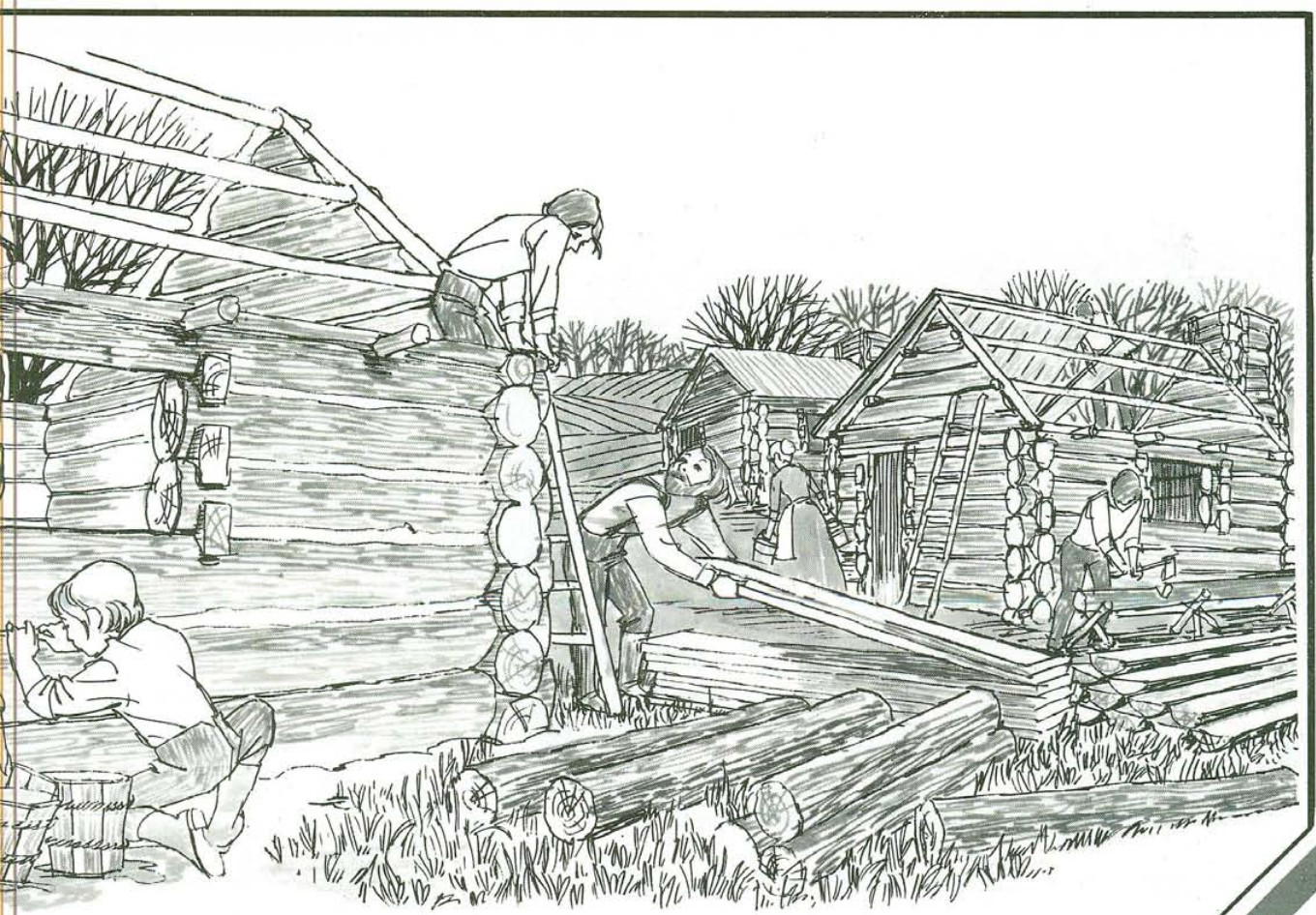
“나도 잘 모르겠구나. 알아 보도록 하자”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부자는 함께 큰 화롯불을 지나 부

리감영이 캠프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다. “모두 다 모이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이 사월 이십 오일이니까 땅이 씨뿌리기에 알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면 가을에는 훌륭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 해도 우리 뒤에 오는 성도들이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병자는 다 나을 때까지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음식과 의복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더 많이 얻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 수가 있어요. 우리 뒤에 오는 성도들은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지어 놓은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이 계속되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있었다. “저는 우리 진

영을 몇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백명은 통나무를 자르고, 48명은 집을 짓고, 10명은 담을 쌓고, 12명은 우물을 파고, 10명은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나머지 175명은 덩불이 많은 땅을 고르고 나무 쟁기를 만들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부리감 영 대관장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토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새 계획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서로 돕는 훌륭한 방법이구나”하고 어머니도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중에도 나부에서 떠나 여행하다가 병이 났을 때 쉬거나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나부를



떠날 사람이 많을꺼야.”

“알기만 하면 아마 전부 다 떠나
올꺼예요.” 토미도 나무를 회상하
며 같은 또래 소년들과 놀던 즐거
운 때를 기억하면서 생각에 잠긴
듯이 말했다.

베시는 “여기에 그들을 위해 만
든 집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 줄
수 있을까요?”하고 물었다.

“형제분들이 알리실꺼야”어머니
가 대답하셨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막사로 돌
아 오셨는데 자기가 맡은 일로 잔
뜩 흥분되어 있었다. “난 집을 짓

기로 되어 있단다. 토미야, 네가
날 도와 주어야겠다!”

“야 신난다”토미가 말했다. 그
리고 토미의 어머니는 두 부자가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미
소지었다.

그 이후 몇 주일은 무척 바빴
다. 아침마다 나팔 소리에 모두
깨어서는 아침식사가 끝나고 아침
기도를 드리자마자 일에 착수했
다. 두 주일도 채 안되어서 작은
마을이 집, 담, 다리, 우물 등과
함께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이 되었다. 주변에는 여러 에이
커의 땅을 경작하고 평평히 고르고
밀을 심었다. 토미와 베시는 수확

할 때 먹게 될 파이와 케이크를 생
각하는 것이 즐거웠다. 옥수수 대
신에 순밀가루로만 만든 빵을 먹
어본 것도 오래된 일이었다. 그들
은 옥수수가 싫증이 나서 먹지 않
고 그냥 자는 날도 있었다.

토미는 자기가 도와서 지은 집
이 자랑스러웠다. 통나무를 잇다
라 쌓아서 만든 것이었다. 토미가
한 일은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의
틈에다 진흙과 풀을 넣어 메꾸는
것이였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새로 지은 집 중의 한 채로 이사한
날 토미와 베시는 행복했다. 큰
방의 한끝에는 화덕도 있었다. 아
버지는 방 가운데에 놓을 탁자와



의자,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을 딱딱한 침대틀도 만드셨다. 베시와 어머니는 침대의 머리 쪽에서 발 끝까지, 그리고 양쪽 끝을 서로 연결하여 길고 가느다란 끈을 엮어서 스프링이 삼인치 사방이 되게 짚으로 침대를 폭신하게 만들었다.

베시는 그 위에 앉아 보더니 “그렇게 하니까 침대가 부드러워지고 약간 폭신해진 것 같아요”하고 말했다.

“딱딱한 판자 위에서 자는 것보다는 낫지” 토미도 짐마차 안에 있는 자기의 잠자리를 생각하면서 말했다.

모든 것이 제 자리에 놓여지자 베시는 새 집을 둘러 보았다.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고 난로 바닥에는 포트파이가 김을 내고 있

었으며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깨끗한 상보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근사한 집이야. 여기에서 오래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베시는 말했다.

그러나 토미와 베시는 삼주 동안만 그 집에서 살았다. 6월1일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아침에 카운실 브라프스르 떠나야 한다. 영 대관장님은 우리가 모두 여기서 한 것처럼 집을 그곳에 가서도 짓고 곡식을 심어 두기를 바라신단다.”

토미와 베시는 슬퍼 보였다. 어머니는, “우리가 모두 함께 사는 한, 어디서 사느냐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자기가 살지도 않을 집을 짓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란다.”

짐을 다 꾸리고 다음날 아침에 떠날 준비가 되자 가족은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모여 앉았다. 갑자기 마차 소리가 크게 들려 왔다. “우리와 합세하려고 온 마차 행렬 일꺼야”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식사도 하다 말고 식구들은 새로 도착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로 나갔다.

토미는 마차 하나에 친구가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엘리자야, 엘리야야”하고 불렀다. 그들은 돌아다 보고 기쁜 함성을 질렀고 마차에서 뛰어 내려 베시와 토미를 만나러 달려 왔다.

아버지는 엘리자와 엘리야의 식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다. 어머니는 잠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의 어머니가 드러누울 수 있게 하셨다. 베시는 어머니와 같이 로우프 스프링을 만들어서 그들의 잠자리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그날 밤 마차에 올라 앉기 전에 토미는, “엘리자와 엘리야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했다.

“저도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근사한 집에 거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라고 베시도 말했다. ㉞

정책 및 절차

선교부 공보 활동 대표자. 교회의 대부분의 복음 선교는 신문이나 다른 매개체와 교섭하는 일을 맡을 공보 활동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선교부장은 편리한 곳에 사는 지방 회원의 봉사를 활용해야 한다.

멕시코의 교회 학교. 멕시코 공화국에 있는 교회 학교 전체의 금년도 학생 등록 총수는 멕시코의 학교 행정관인 조지 엘 톨리씨에 의하면 7615명이다. 멕시코 국법에 좇아 남미 사회 교육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다. 멕시코의 가장 큰 교회 학교는 연방 지역의 북서 부분에 있는 멕시코시 근방에 위치한 “베네메리포드 라 아메리카”이다. 등록 학생 수는 2,000명이지만 새로이 확장되는 대로 4,500명의 수용 능력을 가지게 된다.

콜라와 지혜의 말씀. 교리와 성약 89편의 지혜의 말씀은 그편에 나와 있는 용어와 특별한 사항 그대로이다.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교회 초창기의 형제들이 “뜨거운 음료”란 차와 커피를 의미한다고 선언한 것 이외에는 공식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콜라에 대해서도 교회 당국이 공식적으로 태도를 밝힌 적이 한번도 없었으나 교회 지도자들은 유해한 습관성 약이 들어 있는 음료수는 마시지 말라고 권고했으며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다. 몸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는 어떠한 것이라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월요일 저녁은 교회 활동을 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월요일 저녁은 가정의 밤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1970년 9월호 신전 공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전 활동, 청소년 체육 활동, 학생 활동 등을 포함한 신권회 및 보조 조직 프로그램의 책임은 이러한 결정에 유의하여 교회 전체가 월요일 저녁을 일률적으로 지켜서 가족이 교회 활동에서 벗어나 가정의 밤을 가짐으로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모임 즉 소위 와드나 지부 단위의 가족의 밤을 가정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갖는 한 월요일 저녁에 가질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비록 가치있는 행동이긴 하나 다른 요일에 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만약 감독이나 지부장의 지시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몇명의 독신이 함께 모여 가정의 밤을 갖는 것도 권고할 만하다. ㉠



신영

1972년 8 월호

사소한 결정



에이 테어도르 터틀 회장

어려운 것은 놀라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인생에서 대번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사소한 결정의 연속이고 그것이 다 모여서 우리의 사람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소년이 예기치 않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가 열 다섯 살로 접어든 해 여름이다 갈 무렵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는 시골에 있는 삼촌의 농장에서 여름 내내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처음 참석한 성찬식 모임 때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집회가 끝나고 몇 분 동안 지체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보였는데 그들은 교회당 바로 밖에서 빼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 갔을 때 친구들은 어떤 함의를 본 듯 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끼어들자 친진난만한 듯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련?”

“어디를 가는데?” 하고 그가 묻자 그들은 “맥주 반잔씩 마시러……”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그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항상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그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름 동안 친구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얼마간 예전대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은 더 어른스러워지고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움으로 그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머무적거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갈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들은 내 친구들이다. 적이 아니야. 하나하나 다 좋은 아이들이다. 그들과 함께 초등학교나 주일학교에서 한 반에 나란히 앉아 공부했었지. 함께 노래도 불렀었어. 몇 명은 같은 주일날에 함께 집사로 성임 되었지. 그들과 여러 차례나 함께 성찬을 전달했었다. 학교 활동으로 더 친해지기도 했다. 모형 비행기를 같이 만들었던 친구도 있고 가짜 권총 놀이를 했던 친구도 있다. 우리는 같이 하이킹도 가고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했었다. 왜 이 간단한 질문 때문에 각별한 우정에 위협을 느껴야 하는걸까?

우리 도래는 친구나 친지의 압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말이다. 게다가 장난에 끼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는 맹충이 취급을 받게 되지. 더구나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들이 적대시 할거야.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이 머리속에 스쳐 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더 강한 다른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모든 생각과 대항하는 원인의 하나는 “그건 나쁜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내부의 어떤 곳에서 인지 용기가 솟아 올라서 그는 “나는 안 가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돌아 서서 자기들의 계획을 수행하고자 맥주 홀이 있는 쪽으로 길을 성큼 건너 갔습니다. 나의 친구였던 그는 혼자 남아서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사람의 독

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 참조)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새롭고 개인적인 면으로 이해했을까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 다음날 그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참되고 진실한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 다섯 살—열 여섯이 거진 되긴 했어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집으로 걸어 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기분이 언짢은 것을 눈치채고는 “웬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니?”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지금 막 겪은 경험을 불쑥 말씀드렸습니다. “애야, 정말 잘했다.”고 어머니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하고 그도 말했습니다.

“넌 옳은 결정을 내렸다. 너도 알겠지만 축복을 받게 될 거야”고 어머니는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던 다음날은 특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형을 되찾기 위해서 재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새 친구를 사귀는 과정도 뒤따라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친구와 같이 끼면 그들의 대화가 끊기곤 하여 마음의 고통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산업 미술 건물까지 걸어 갈 때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꾸밈 없는 즐거움이었고 젊은이들의 운동경기이었던 것이 이제는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것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경우는 우리가 농구경기를 할 때도 나타났다. 내가 분명히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패스를 요구했을 때에도 그들은 엉뚱한 사람에게 공을 패스해 줌으로써 나에게 더 큰 소외감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오래 그렇듯이 다 지나 갔습니다. 시간은 훌륭한 지우개의 역할을 합니다. 시간은 지난날의 슬픈 순간을 희미하게 합니다. 고통을 무디어지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머지 않아 그는 예전의 친구들과 우정을 다시 맺기는 했으나 전과는 달랐습니다. 일년 남짓 지난 후에 이 젊은이는 세미나리 학생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학교에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이년 후에 그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반원 중에 단 한명 뿐이었습니다. 다음해에 반원 중의 다른 한명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결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교회내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름을 받아 봉사해 왔습니다. 그의 성실과 도덕적 표준에 대한 시험이 그의 생애에 많이 닥쳐 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닥쳐 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히 기억되지 않았으며 생애에 큰 인상을 남긴 것은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극적인 상황이 아닌 때에 그는 선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듯이 옳았습니다. 어머니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너도 알게 되겠지만 너는 축복을 받을거다.”

유일무이한 인물

요셉 스미스

레온 알 하트슨

1844년 6월 29일 날씨도 따뜻하다. 배 한 척이 미시시피 강에 자리 잡은 말굽 모양으로 된 강변에 다가 온다. 강변에는 도시가 있다. 배를 타고 온 여행자는 지도를 보고 도시를 찾으려고 하지만 몇년 전에 인쇄된 지도에는 그 도시에 대한 표시가 없다. 물어 보고서야 그는 그 도시가 나부라는 것을 안다. 배는 이곳에서 잠시 머물기로 되어 있다.



에언자 요셉 스미스의 은판 사진 원본으로서 1843년 나부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함.

배가 부두에 닿자 여행자는 왜 사람들이 긴 행렬을 지어 강어구에 위치한 큰 집에 들어 가려고 기다리는지 호기심을 품게 된다. 성급히 서둘지는 않으면서 그는 선장에게 하룻밤을 나부에 머물겠노라고 이야기한다.

여행자는 행렬의 끝에 다가 가자 이들이 슬픔에 싸여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여자들 뿐 아니라 남자들 까지도 많이 울고 있다.

실례합니다. 왜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서 있습니까?" 그는 한 조객에게 다가 가 물어 본다.

조객은 놀라 쳐다 보며 이렇게 말한다. "정말 모르고 있소?"

"나는 방금 배로 도착한 나그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이틀 전에 살해당하신 요셉 스미스 중장과 그의 형 하이람의 영구를 보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스미스 중장이라니요?" 방문객은 의아스럽다는 듯이 물어 본다.

"예, 그분은 군병 5천명으로 구성된 나부 군단의 중장이었습니다."

"그외에 죽은 사람들은 몇명이었습니까?" 방문객이 질문한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은 요셉 스미스 중장이 돌아 가신 주요 원인입니다. 그분은 자기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만을 노린다는 것을 믿었으며 만약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죽지 않고도 피를 원하는 원수들의 욕망이 채워지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형님인 하이람이 살아 나기를 바랐지만 그의 형은 고집하고

그의 걸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죽게 한 소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여행자가 질문한다.

"글쎄요, 공적상의 이유는 나부 익스포지터 신문사를 파괴했다는 것이지요." 조객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말을 계속한다. "그 신문사는 요셉의 원수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요셉 스미스를 미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동적인 중상 모략의 기사와 거짓말을 유포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시 의회와 요셉 스미스 시장이 신문사에 폐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도시의 시장도 지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최근에 생긴 도시임에 틀림없는데, 내가 가진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말한다.

"예, 이 도시는 최근에 생긴 도시입니다. 6년 전만 하여도 이곳은 늪지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행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이런 말을 한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강에 도착했을 때 농장과 가축 우리는 교외에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습니다."

"맞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런 식으로 도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이 도시를 계획하셨나요?"

"예, 대다수가 농민들인 이곳 시민들이 도시 생활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함께 친분을 나누고 서로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후 여행자는 넓고 곧은 거리와

훌륭하게 건축된 주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현재 건축 중에 있는 큰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객은 그에게 그 건물은 신전인데 요셉 스미스가 이를 도시 내에서 주요한 경계표가 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려 준다.

“요셉 스미스가 신전을 설계하셨군요!” 여행자는 감탄하며 처음 화제를 기억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그의 죽음의 경위에 관해서 말씀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바로 익스포지터 신문사 사진이었지요. 그러나 소동은 훨씬 오래 전에 시작되었답니다. 요셉이 고대 기록을 번역하기 전이었습니다.” 조객은 말한다.

“요셉은 번역자였나요? 이 고대 기록의 번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문객은 다시 묻는다.

“출판되었습니다. 책은 물론경이라 일컬습니다.”

“그는 다른 책도 출판하였습니까?” 방문객이 질문한다.

“그럼요. 교회 대관장으로서 그분은...”

“교회 대관장이었습니까?” 방문자

요셉이 구모라 언덕에서 금판을 가지고 돌아 왔을 때 하이람은 그에게 금판을 담아 두도록 이 상자를 주었음.



는 감탄하며 말한다.

“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셨습니다. 나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교회 회원입니다. 그분은 교회 대관장으로서 교리와 성약을 출판하셨고 그리고...”

“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놀란 여행자는 물어 본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의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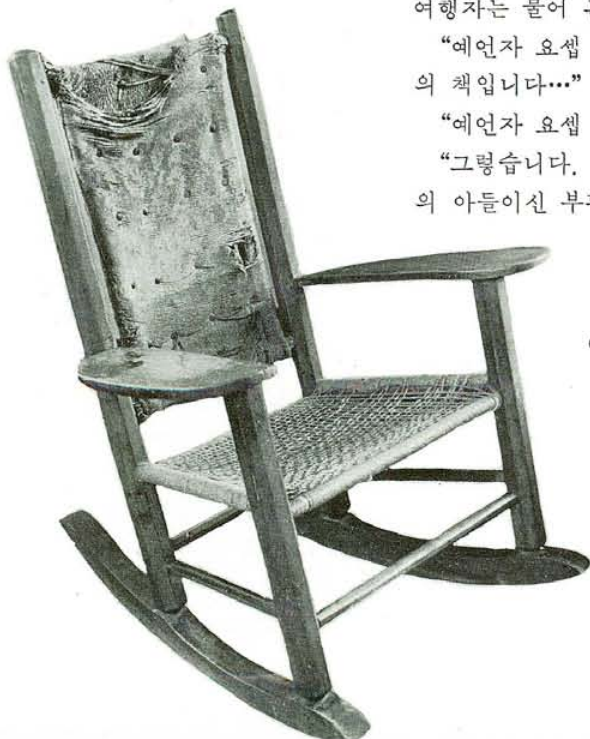
“예언자 요셉 스미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

서 소년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와 함께 대화하였습니다. 사실상 박해가 시작된 것은 기쁨과 열의에 찬 요셉이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가 시현을 보았다고 이야기한 후부터였습니다. 박해를 받은 사람은 요셉 뿐이 아니라 요셉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받았읍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뉴욕이나 오하이오 주나 미조리 주에 있는 고향을 두고 쫓겨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조리 주에서 우리가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구제를 받기 위해 애썼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분이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주요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어리둥절하게 된 여행자는 소리친다.

조객은 말을 계속한다. “바로 사울전 요셉은 그의 농장과 신전을 에타게 바라보며 자기 가족에게 못내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이런 말을 하셨



예언자가 좋아하던 흔들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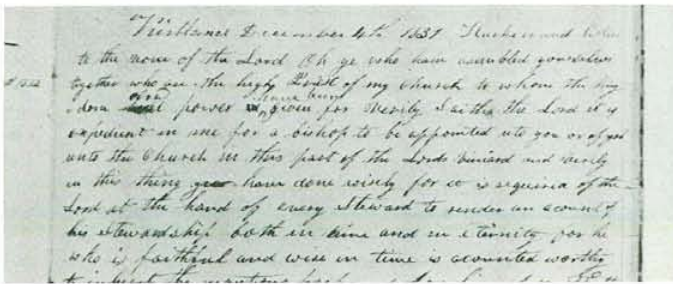
이 그림은 초기의 은판 사진으로 찍은 요셉 스미스의 사진에서 그린 것이라고 함.



예언자 소유의 나무 군단 제 목에서 나온 역대 버클.



교리와 성약 72편 중에서 요셉 스미스 자신이 친필로 적은 원고의 원본.



요셉과 하이람에 관한 이 판화는 유럽과 미국에서 널리 출판 됨.



물문경의 초판.

예언자가 소유한 권총.



자, 저자, 시장, 예언자, 교회 대관장, 도시 계획자, 건축사,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요셉 스미스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짙막한 장면은 그저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요셉 스미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이다.

요셉이 17세때 모로나이가 예언한 말이 성취되어 그의 이름은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지며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고”(요셉 스미스 2서 : 33) 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 중에서 물론과 요셉 스미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한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4천년 전 애굽으로 팔려 갔던 유명한 요셉은 이런 예언을 했다. “저의 이름은 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지며, 저는 나와 같으리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이루게 하실 일은 주의 권세로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나이 3 : 15)

사실상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위해 바치신 그의 희생에 관한 많은 예언을 제외하고서는 경전에 있는 어떤 일보다 말일에 요셉 스미스가 시작할 사업을 예고한 경전의 예언이 많이 있다.

요셉이 죽은 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여 경전의 일부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셨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성 135 : 3)

요셉 스미스를 아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의 생애와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사전에 관한 것을 아직 듣지 못했거나 읽어 보지 아니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상상이 가능한 모든 종

읍니다. 이 도시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늘 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요 가장 훌륭한 백성입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자신의 몸을 원수들에게 내어 주기 위해 카테지에 있는 군 소재지를 향해 말을 타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교성 135 : 4) 그는 보

호와 공정한 제판을 받도록 약속받았으나 이틀 전 6월 27일 얼굴에 검은 칠을 한 백여 명의 폭도가 감옥을 습격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 요셉과 하이람은 살해되어 있었읍니다.”

“요셉은 몇 살이었읍니까?” 여행자는 질문한다.

“38세였읍니다.” 조객은 대답한다.

방문객은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혼자 생각에 잠긴다. “중장, 번역

류의 사실이 백여년 동안 사랑과 관심을 가진 말일성도에 의해 꾸준히 수집되어 왔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평범한 말일성도이라 하더라도 이미 첫번 시현에 관한 자세한 기록, 금판을 번역한 일,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와서 그에게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하여 준 일, 그리고 과거의 유명한 인물 중에서 아담, 노아, 모세, 엘리야, 일라이어스와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실제로 방문하신 일의 대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모세서와 아브라함서에 담긴 수많은 계시, 교회의 많은 교리, 요셉이 구세주를 위해 이룩한 위대하고 복잡한 조직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침례에서 신전 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교회 의식 그리고 천 한 개의 기타 사실, 자료,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과 그림에 관해서 알고 있다.

이러한 것들 외에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들과 연결이 될 만한 새롭고 가치있고 뜻깊은 사실이 있을까? 우리는 이외에도 무엇인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많은 학자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실과 이야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찰할 때마다 새로운 통찰이 계속 떠오르곤 한다.

예언자의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아박을 부를 때 사용한 저널 식사를 알리는 종.



예언자의 서명이 있는 커트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은행권.

우리는 교회 정사 여섯 권을 보고 요셉이 그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그들을 어떻게 염려하고 사랑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을 조사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몇 가지 내용은 교회 정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러분이 요셉 스미스에 대해 듣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든 상관치 아니하고 우리는 이 자료가 새로운 방법으로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 다시 말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처신의 자세를 제시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그의 부인 엠마 스미스에 관하여 :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가슴이 벅차는 기쁨으로 나는 나의 아내 요진실르 나와 젊음을 같이 보낸 아내요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 사랑하는 엠마를 손으로 잡았다. 잠시 내가 우리들이 겪었던 슬한 우리 생애의 피곤과 수고, 슬픔과 고통, 이따금 맛보았던 기쁨과 위안을 깊이 생각할 때 내 마음에는 온갖 추억이 떠올랐다. 이렇게 되살아 난 추억은 잠시 동안 참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지 않았던가. 비록 일곱 번째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대담하고 마음이 굳고 흔들리 않은 채 여기에 있지 않은가. 변함 없고 애정이 깊은 내 아내 엠마.” (5 : 107)

—“엠마와 함께 외출하여 농장을 방문하고……그후에는 가정에서 시간을 보냈다.” (5 : 207)

—“저녁에는 마차를 타고 엠마와

함께 외출했다.” (5 : 360)

—“걸어서 엠마와 함께 상점에 갔다.” (5 : 21)

—“오전에는 주로 여러 가지 화제를 가지고 엠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둘다 기분 좋았고 매우 즐거웠다.” (5 : 92)

—“아내와 동반하여 윌라우비에 가서 물건을 샀다……” (2 : 290)

—“나는 엠마와 함께 썰매를 탔다.” (6 : 170)

—“모임을 마친 후 엠마와 함께 외출했다.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다.” (6 : 279)

—“오후에 엠마와 함께 외출했다……복숭아 나무가 참 아름다워 보였다.” (6 : 326)

1942년 가을 엠마가 몹시 앓았다. 순서 없이 몇 가지 일을 소개하던 다음과 같다.

—“오늘은 엠마가 열병으로 앓기 시작했으므로 온종일 그녀와 집에 있었다.” (5 :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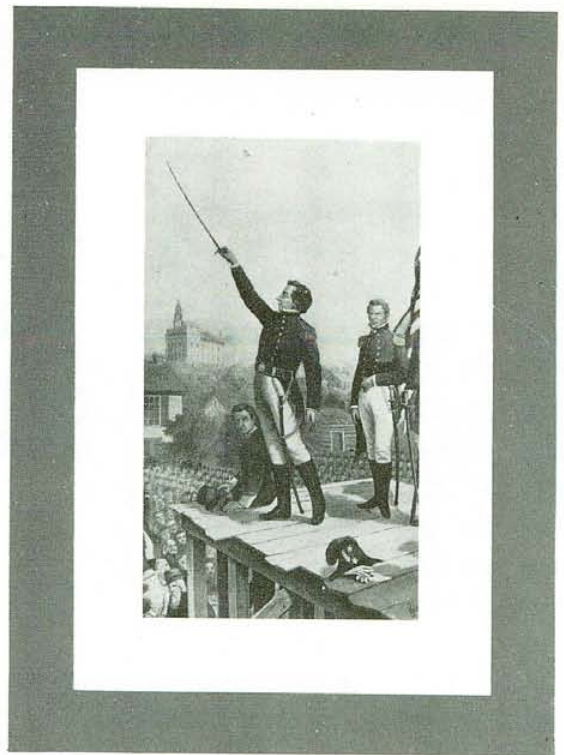
—“엠마의 병에는 전혀 차도가 없다. 나는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있었다.” (5 : 166)

—“엠마의 병에 조금 차도가 있었다. 나는 온종일 그녀와 함께 있었다.” (5 : 167)

—“엠마가 또 몹시 앓고 있다. 나는 하루 종일 그녀를 간호했다. 나는 약간 서투렀다.” (5 : 167)

—“사랑하는 엠마의 병이 악화되었다……나는 엠마의 병 때문에 기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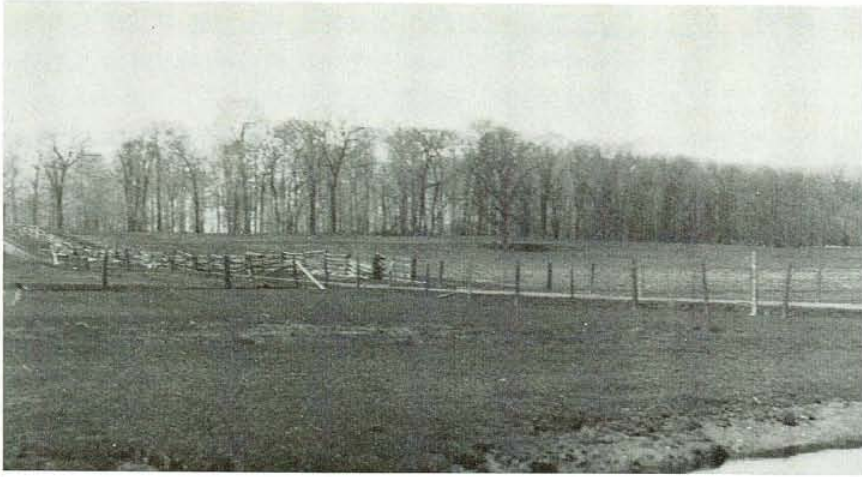
버몬트 주에 있는 예언자의 집의 침대.



1844년 봄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판화.

요셉 스미스의 약력 (1805—1844)

날짜	나이	사건
12월 23일		버몬트 주 채론에서 출생.
1805년		
1813년	7	다리를 거의 절단할뻔 하였으나 절개하여 뼈를 깎아 남으로써 구하게 됨. 그의 생애에서 특성을 이루게 한 남다른 용기와 은유함을 보여 줌.
1820년	14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과 대화함.
1823년	17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니파이인의 금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음.
1827년	21	앵마 예일과 결혼함. 금판의 관리를 맡고 번역을 시작함.
1829년	23	짐레 요한으로부터는 아론 신권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음.
1830년	24	물론경을 출판하고 교회를 조직함.
1831년	25	오하이오 주 커트랜드로 이동함. 미조리 주 인디펜덴스에 있는 신전 부지를 헌납함.
1832년	26	대신권의 회장으로 지지를 받음.
1833년	27	대관장단을 조직하고 계속해서 많은 계시를 받음. 이 중의 하나가 지혜의 말씀임.
1834년	28	시온의 야영대와 함께 오하이오 주에서 미조리 주까지 도보로 감. 두 곳에서 성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격함.
1835년	29	십이사도와 70 인을 성임함. "교리와 성약을 성도들이 받아 들임.
1836년	30	커트랜드 신전을 헌납함. 예수, 모세, 알라이어스, 엘리야가 방문함.
1838년	32	미조리 주로 이동함. 리버티 감옥에 갇힘.
1839년	33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교회를 인도함. 나무를 건설하기 시작함.
1841년	35	성도들이 나무에 모이도록 소집령을 내림. 유럽 성도를 미국에 데려 오기 위한 이민 기관을 계획함.
1842년	36	아브라함서를 출판함. 결국에는 성도들이 록키 산으로 이동하리라고 예언함.
1843년	37	반 물론주의자의 압력과 법적인 애로 사항이 주옥을 끌게 함. 영원한 결혼에 관한 계시를 기록함.
1844년 6월 27일	38	형 하이람 스미스와 함께 오후 5시 15분이 지난 직후 케테지에서 총탄에 맞아 순교함.



신성한 숲. 아마도 요셉 스미스의 어린 시절의 숲의 정경인 것 같음.

좋지 않았고 몹시 걱정되었다. (5 : 167—8)

—“엠마가 조금 회복되었다. 나는 신이 났고 기분이 좋았다.” (5 : 169)

—“...엠마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5 : 169)

—“나는 엠마의 건강을 위해서 그녀와 함께 신전에 갔다. 그녀는 매우 빨리 회복하고 있다.” (5 : 182)

—“엠마와 함께 신전에 갔다.” (5 : 183)

자녀에 관하여 그와 엠마는 어릴 때 죽은 자녀 6명을 두었는데 이 중에서 5명은 친 자식이었고 한 명은 양자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인이 되도록 살아 남은 자식은 5명이 있었는데 이들 중 4명이 친아들이었고 한 명은 양녀였다. 엠마는 예언자가 돌아 가신 뒤 5개월이 지나 막내를 낳았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농장에 갔다가 밤 늦게서야 돌아 왔다.” (5 : 182)

—“저녁 식사 후 나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했다...” (2 : 297—8)

—“아침에 아이들을 마차에 태워 주고 기쁘게 해 주었다.” (5 : 369)

—“가정에서 하루 종일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즐겼다... (2 : 345)

—“집에 남아 가족과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 : 45)

—“저녁에는 난로가에 앉아 가족에게 문법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다.” (5 : 307)

—“오후 4시 나는 프레데릭과 밖에 나가 얼음을 지침으로써 자신의 몸을 단련시켰다.” (5 : 265)

병중에 계신 아버지께 관하여 :

—“아버지에게 문안하러 가서 아버지께서 매우 쇠약하게 되신 것을 알았다.”

—“집에서 나는 크게 걱정하며 아버지를 간호해 드렸다.” (2 : 289)

—“집에서 아버지를 간호해 드렸다.” (2 : 289)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아버지께 문안하였다...” (2 : 290)

어머니에 관하여 :

—“어머니께서 같이 생활하기 위해 집에 오셨다.” (5 : 271)

—집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께서는 폐염으로 앓고 계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다...” (5 : 290)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와 다른 사람과 함께 외출했다.” (6 : 65)

—“아직도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간호해 드리기 위해서 온종일 집에 있었다.” (5 : 298)

친형제들에게 사랑을 표시함 :

—하이람 : ...나는 죽음보다도 더 강

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 이는 내가 그를 한번도 책망하지 않았고 그도 나를 책망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2 : 338)

—알빈 : “나는 그가 죽었을 때 나의 젊은 가슴에 가득 차 부드러운 심장을 터지게 해 주던 쓰라린 슬픔을 잊지 않고 있다.” (5 : 126)

—돈 카로스 : “그는 준수하고, 친절성이 곱고, 친절하고, 유덕하고, 충실하며 강직한 소년이었다. 그의 영혼이 가는 곳에 내 영혼도 함께 가게 하고 싶다.” (5 : 127)

지금까지 순서를 가리지 않고 소개한 이들 내용은 사랑이 많고 남에게 염려와 관심을 보여 준 요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이상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 즉 가족을 위한 일을 너무 바빠 하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수년 후 팔리 피 프레트(1807—1857 1835년 2월 21일 사도로 성임 됨.)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그리고 아들과 딸의 훌륭한 관계를 애써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가족을 가지고 있다. 요셉 스미스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기울였는가를 같이 생각해 본 뒤 금년에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해보자. 우리가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행복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질문과 대답



1.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종교 생활의 중



심되는 원리로 삼았으며(마 22)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전 13)

하나님만이 사랑의 참뜻을 알고 계시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복음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제애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에는 종류가 많으므로 먼저 형제애가 아닌 사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

제애란 이성간에 느낄 수 있는 감상적이고 달콤한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사랑이란 그것이 비록 높은 차원에서 이상적으로 나누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리적인 본성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이란 다른 사랑으로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안정을 잃기 쉽고, 약화되기 쉬우며,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고, 질투와 시기가 따르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기독교인의 사랑을 “투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애란 우정의 일부가 될 수는 있으나 우정과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좋아하고 상대방을 사귀으로써 기쁨을 얻으며, 비밀을 지켜주고, 충성스럽고, 신뢰하고, 서로의 이익을 나눕니다. 우정이란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형제애란 낭만적인 사랑이나 우정보다도 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복리에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의 생애는 타인을 향해 봉사의 생애로 일관됩니다. 형제애란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게 해 주므로 다른 사람이 보여 준 사랑이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이나 우정과 같이 그것을 지키는데 민감한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덤덤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속에 거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된 형제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참된 시험은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이상에서 말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랑과는 달리 형제애란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형제애를 지닌 위대한 분은 어느 나라 민족이건, 죄인이건, 성자이건, 아름답건, 추하건, 신앙이 같건, 다른 진간에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사실 누가 사랑을 할 상대자를 고른다면 그는 형제애를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형제애란 본질적으로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과 같은 느낌이나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항적이거나 배척하는 사람의 이로움을 위해 희생하려면 극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제애란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만큼 사랑을 감동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제애가 모든 형태의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안정되고 지속력있는 사랑이라고들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 방식에 실수를 범하는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항상 그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부정적인 말이나 단호히 입장을 취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상대방에게 공격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일 것이 두려워서 그들에 대한 옳은 판단을 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제애란 정의, 확신과도 일치합니다. 나는 어느 젊은 학생에게 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그를 확고하게 해 줄 수 있었던 용기를 가졌을 때 가장 멋있는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형제애란, 철학자 칸트의 말을 빌리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테이트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거나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황금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복음과 인간 생존의 근본 원리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구상에서의 우리 생활은 점점 어렵게만 될 것입니다.

로셀 엘 베니온
유타대학 부학장.

2

2. 제 친구 한 명은 경전에는 전세에 관해 분명히 말해 준 구절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께서 과연 이러한 내용이 그 질문에 묻는 것의 확증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는 전세에 존재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요

1. 칸트, 임마누엘, 독일철학자, 1724~1804.

1:14)고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그의 이름을 받들므로써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다른 말로 말해서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며, 그리스도 자신도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다만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가 태어나기 1200여년전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 10:4)고 말했습니다.

구세주가 전세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구가 더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의 영광을 그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요 17: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기 오래 전에 전세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세주 이외에 다른 사람이 영의세계에서 살았다고 가르쳐 주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 보겠습니다.

2. 예레미야도 전세에 있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계시를 통해 자기가 영의세계에 살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1:5)

이 성구가 말해 주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알았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성별하였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성임하였으므로 예레미야는 육신의 몸을 갖기 이전에 전세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3. 욥도 전세에 있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하였었느니라” (욥 38:4,7)

비록 주님께서는 욥에게 그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질문은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딘가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성구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29에서 “신의 소생”이라고 말함) 우리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욥(예레미야나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존재해 있었다고 결론을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전세에 관해 믿고 있는 바

를 이야기했을 때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론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에게 관해서 사도는 예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요 9:2) 그 질문은 단지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죄를 범했는가라는 것만이 아니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죄를 범했는가 라는 질문임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그들이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모두 살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며(3절) 그는 인간이 전세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 어떤 성구는 인간이 전세에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말일성도들은 인간이 지상에 오기 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중 삼분지 일이 하나님을 모반하고 사탄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교성 29:36~38, 모세서 4:1~4 아브라함서 3:22~28참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성구와 설명이 여러분의 친구로 하여금 인간이 전세에도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만일 그들이 거룩한 진리를 추구하는데 진지하다면 이상의 자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나 주장을 성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탐구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린 리스

부리감 영 대학 종교 담당 부교수

3

3. “종교 교육이 일반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키메론 형제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날을 예견하여 보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다 12:4)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딤후 3:1,7)

오늘날에도 지식을 위한 지식을 얻는 점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란 인생과는 조금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과 교육이란 몇몇 전문가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오늘날 그것은 목적을 향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행운, 1964년 11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이성이나 계시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연구와 분석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연구해야 할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연구의 영역 내에서 배우는 능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리니, (교성 88:79)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권고를 따른다면 일반 학문의 연구에도 기울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학문적인 연구에만 치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88:78)

우리는 모든 학문이 종교 교육과는 분리된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영의 인도 아래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우리는 그만큼 더 종교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의 동생 야곱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헛됨이여, 저들이 학식을 얻으매 스스로 현명하다 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옆으로 밀어 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니이 9:28~29)

우리가 얻는 학식은 우리가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유익이 되나 우리가 영과 영원한 진리를 통해 얻은 지식은 하나님 왕국에서 이 생은 물론 영원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좇는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우리의 힘을 다 바치면서 발견된 진리를 우리의 생활에 흡수한다면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제이 엘리엇 카메론
십이사도 지역 대표
부리감 영 대학교 학생장

4

“선교사는 어떻게 부름을 받나?”

대답 킴볼 회장



킴볼 형제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인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이러한 정책에 따르면 각 선교사는 교회의 대관장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론도 이러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읍니다. 주님의 예언자인 모세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름을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선교사를 부르는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작되며 그 중에 선교사 집행 위원회가 받는 영감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스테이크나 선교부에서 이들에게 오는 모든 추천 사항을 주의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가 추천 사항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살피게 됩니다: 즉 합당성, 연령, 경험, 군대 관계, 가정, 재정, 건강, 언어 능력, 욕망, 국적, 요구 사항, 일반적인 태도, 여러 가지 사명의 필요성 등을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합당히 평가될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디에서 가장 큰 봉사를 하게 되는가가 결정되며 주님의 영감이 진지하게 추구됩니다. 대관장의 승인이 있은 후 감정적인 지명이 결정되고 이것이 후보 선교사에게 우송됩니다.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
십이사도 정의회 회장

5

“교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지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로 여성은 남편을 따라야 합니까?”

대답 심프슨



심프슨 자매

말일성도 여성의 남편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와 협조의 자세는 남편이 주님의 계명에서 어긋나는 길로 아내를 인도할 때 약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남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진실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들은 서로의 복리와 행복을 가져다 주려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심 없는 마음, 사랑, 친절 등은 이러한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지지하고 격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경의 야곱서에는 남편이 악하므로 빛어지는 슬픔의 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남편들이 개심하지 않는다면 방문하여 “혹심한 저주로 처 필경 멀하여 버리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두 결혼계약에 성실하고 서로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이 가장이고 아내는 그의 보좌가 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모든 아내가 이러한 역할을 받아 들이고 모든 가장이 사랑과 은유함과 권능을 가지고 가장의 말은 바를 다 한다면 결혼 생활의 불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완전히 믿는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바깥 세상의 고뇌에서 남편을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줌으로써 남편을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남편이 낙담할 때는 격려를 하여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가정의 외 어느 곳에서 그토록 완전히 받아 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여성이 가정 바깥의 사회 일에 참여하는 시대에는 아내는 가끔 자기 남편에 대한 관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해의 왕국에서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영이란 주님의 계명을 지킨 의로운 부부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발전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남편의 사랑이 점점 강하여지고, 그가 그의 신권을 존중하며, 교회에서 자녀의 활을 지켜 보고, 다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살 때 얻을 수 있는 행복만큼 더 큰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레어 심프슨
로버트 엘 심프슨 장로 부인.

내생애가 바뀐날

웬델 비 존슨



데니스 스미스 조각

마침내 긴장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자신을 알고 내 생애에 가졌던 거짓된 자만심을 없애기 위해 내가 겪었던 생애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나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육체의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를 아는 것이 더욱 쉬운 일입니다. 현대 나의 영적인 생활은 이 점에서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가 어디에서부터 나쁜 길을 걷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교육시키셨습니다. 어머니는 재치와 노래로써 우리의 생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좋아했고 집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침례교와 침례 의식에서 얻은 느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되었을 무렵 나는 경건성을 유지하지 않는 또래의 소년들과 함께 뒷편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복음에 대한 감수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전을 연구하고 간증을 얻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동기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 일에 쉽게 마음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무서운 사고가 생겼고 이렇게 하기를 3년간 하였습니다만 결국 나는 교교 시절의 초기에 내 생애의 일부가 되었던 유행과 불성실을 돌아 보고 참으로 그러한 것들의 가치관의 대부분이 모방적이고 천박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다시 1964년 8월 어느 아름다운 여름 날로 돌아 갑니다. 일찍 떠오른 태양으로 보아 날씨는 매우 무더웠으나 농장 일을 하기에는 안성 마춤이었습니다. 일년 중 이때가 되면 우리는 짚과 건초를 거두어 들였는데 나는 유타 주 매플톤에 있는 언덕에서 그곳에 사는 농부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참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오후는 너무나 더웠으므로 언덕의 마른 땅에 있는 웅덩이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수영하기 좋아하는 웅덩이였습니다. 관개용으로 마련한 도랑이 이 지방의 명맥을 이어 주었습니다. 물은 짙흙으로 된 지방에서 작은 수영장인 웅덩이로 흘러 나왔는데 이곳에서 대대로 소년들은 무더운 7, 8월 동안의 더위를 잊으며 즐겼습니다.

웅덩이의 동쪽에 아마 높이가 10피트나 될 제방이 있었습니다. 1964년 그날 오후 내가 이곳에 섰을 때 여름의 천둥 구름이 어떤 불길한 분위기를 감돌게 하며 언덕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속을 내려다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떨렸습니다. 이에 상관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어떤 불길한 생각이 떠올라 나는 자리를 잡고 얇은 다이빙 장소로 향해 나갔음

니다. 나는 몸을 돌려 물밑에 놓여 있는 찰흙 시령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때 나는 이 찰흙 시령을 볼 수 없었는데 물이 온통 빨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 온 몸은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목이 부러지고 척수가 절단되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들은 너무나 많고 착잡하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도무지 회상할 수가 없습니다만 나는 참으로 한 인간의 생명이 종말을 고하는 것 같은 덧없는 짧은 순간 동안 눈앞에서 사라져 감을 깨달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이와같은 무서운 종말의 순간을 경험한 자만이 진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현실이 나를 밑바닥으로 끌어 내렸을 때 나는 문득 내가 알았던 모든 감각이 이제는 한낱 기억속에만 감추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이 굽어짐으로써 나의 정신은 완전히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몸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파도가 끌어 당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점점 나의 상태가 중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어 버렸으므로 어쩔 수 없이 바닥으로 떨어진 채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한 나이에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이 진실로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는 듯이 생활합니다. 우리는 청춘이란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빠져 있으면서 내 생명이 이제 16세라고는 하지만 불멸성을 지니고 있다는 느낌으로부터 내 정신을 깨우쳐 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써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수영하는 자세로 팔다리를 움직이며 수영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내몸에는 일체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비로소 나는 두 번째로 빠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웅덩이에서 무력하게 바둥거림에 따라 내 정신은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내 귀에는 애쓰는 가느다란 소리가 점점 약해져 멀리 사라져 가고 나는 힘 없이 죽음이 목전에 다가 왔다는 사실에 자신을 내어 맡겨 버렸습니다. 나는 갑자기 수면에 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와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 나를 물에서 끌어 내려고 했을 때 나는 희미하게나마 햇빛을 볼 수 있었고 떠오르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동안 숨쉬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 강렬하였기 때문에 터질 것 같은 허파에 공기가 들어 가자 이제 살았다는 느낌이 지배했습니다. 친구 일곱 명이 물 속에 내려 와 조심스럽게 나를 제방으로 운반하여 인근에 휴길에 누웠습니다.

나는 내 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 몸의 일부이긴 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허탈감에 빠져 있었고 나는 몹시 피로움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일이 빨리 나 주기를 바랐습니

다. 어느 면에서는 끝없는 악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약간 알았습니다. 배플톤 시의 구급차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급차에 실려 진 뒤에도 엔진이 걸리지 않아 발동이 걸릴 때까지 사람들이 차를 밀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항상 어떤 불길한 소식을 예고하는 듯한 사이렌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번의 사이렌 소리는 내 자신의 비극을 알리고 달갑지 않게 나를 극소수의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경험 속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옮겨졌을 때 복도는 더욱 어두웠습니다. 나는 문에 걸린 "정밀 치료과"라는 표시를 보았고 내 주위에서 산소기가 움직이는 소리, 걸음을 조정하는 이들의 움직임,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 다급한 사람들 등 병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 내 척수가 거의 부러지고 나의 목은 제5 척추와 제6 척추 사이에서 빠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다시는 평생토록 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나를 밤이 쉰 때까지 살려 두는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척수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치료대 위에 나를 옮겨 놓고, 나의 두개골 중에서 아주 작은 곳에 약간의 극부 마취를 시키고는 송곳으로 첫 번째 뼈에 톱니 모양의 작은 홈을 두 개 파서 두개골과 목이 팍 붙어 있게 하였습니다. 그후로 13주 동안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만 할 상태에 놓였던 것입니다. 나는 눈만 깜빡거릴 수가 있었지 그외에 다른 동작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계속내 목이 끌어 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서 이같이 무력하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를 만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이때 내 머리위에 손을 얹으시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나는 일생에서 처음으로 신권의 능력을 진실로 느꼈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내 마음에 살아났고 내 생애에 다시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소망이야말로 영혼을 높이 끌어 올려 줄 수 있는 참된 힘이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앞을 가로 막는 어떠한 장벽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후 나는 부러진 척추가 볼도록 하기 위해서 외과에 다녔고 마침내 절개 수술한 것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매일같이 우리가 달성하기를 바랄 수 있는 정도로 신경 조직의 기능이 회복되는가를 보기 위해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나는 작게 오그라 들어버린 내 팔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힘든 농장 일을 하면서 내가 단련시킨 근육의 살은 빠져버리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치료가 많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직도 약간 남아 있는 작은 이 두 근육에 치료하는 것을 지켜 보다가 심줄이 뛰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15주 동안에 내 팔에 생명이 있다는 첫 징조였습니다. 우리는 이 심줄의 움직임에 대해 치료하기 시작하였고 일주일 이내에 이것은 두 번째의 힘을 주는 경

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조그만 차도가 소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나는 이것이 신권 소유자에 의한 병자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가 꿈쩍 없이 여생을 전신 마비가 된채 살아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주 지사와 힐 공군 기지에 있는 군인들의 호의로 나는 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송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 시에 있는 스펀트 메디칼 센터에 옮겨졌습니다. 첫날 밤에는 그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워드 감독 한 분이 찾아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캘리포니아에 온 것을 환영하고 회복하도록 노력하여 건강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물어 주셨습니다.

대개 팔, 목, 어깨에 집중해서 열성있는 치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팔꿈치에서 팔목과 손까지의 부분을 움직일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스프운을 잠도록 부착시킨 특수한 벨트를 걸고 있었습니다. 나는 찰흙 덩이를 집어 보고 땅콩 버터를 손수 먹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땅콩 버터를 얇게 썰 수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여러 차례 시도한 결과 잔잔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입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볼 수 있었고 내가 식사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감자 이진 것 등을 겨우 집울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근육이 움직이므로 나는 다만 한 가지 운동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팔을 굽힐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소년 시절에 유화, 그림 그리기, 그래프 만들기 등 예술과 관계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흥미를 가졌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펜이나 붓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때 내게 만약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여 중지되어 버린다고 하는 성구가 스쳐 갔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나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후 어느 날 어깨 동작을 바로 하기 위해 애쓰며 앉아 있을 때 나는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잠시 나는 연필을 집어 내 이름을 써 보는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공상에 잠겼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하잘 것 없는 사소한 일이 어떻게 하여 뜻깊은 것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문을 받고 멜빵 제작자는 멜빵에 작은 부착물을 붙여 내가 거의 자연스러운 자세로 연필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면서 종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가 처음으로 크레용을 쥐었을 때처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종이에 연필을 움직였을 때 나는 뜻이 없는 낙서 밖에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더우기 나는 알파벳조차 그 형태를 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때에 자신에게 닥친 장벽으로 인해 느꼈던 큰 실망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나 나는 작은 나무를 그리는데 성공하였고 내 이름을 쓰는 것을 익혔던 것입니다. 이 일은 나에게 큰 발전이었습니다.

다시 가정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독서도 많이 하려고 애썼는데도 나는 자신이 큰 위기에 빠져 들어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해 여름에 교회에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든 일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심한 자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스스로 지탄을 받는다고 느꼈고 사소한 일에도 반발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아 성찬을 들어야 하는 일은 굴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반응은

편지병을 갖게 만들었고 나는 무가치하다는 느낌과 죄책감을 마음에 불러 들였습니다. 나는 교회와의 접촉을 끊고 집 뒤에 있는 작은 방에 박혀 있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고독과 침울의 세계로 빠져 버렸습니다. 5개월 동안 나는 자신을 학대하며 이전에 가졌던 힘은 모조리 없애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나는 앓은뱅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였고 주님의 용서도 의심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냉혹하지는 않았는데 헛된 일이었지만 소망을 간직하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에야 나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하여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이와같은 태도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을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방도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내 영혼마저 그렇게 어두워갔습니다. 나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는 좌절감속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 들어 오셔서 나를 찾아 온 손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에 들어 선 남자는 키가 웅장했고 내 성격과는 판이하게 매우 자신에 차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역 세미너리에서 온 하우스형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마을로 이사해 왔지만 마치 오랜 동안 서로 알고 있는 사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당시 나는 이 사람이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 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분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사람이 한 두번 정도 방문해 주리라고만 기대하였는데 이러한 의아심은 곧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주 그는 경전을 가지고 와서는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먹여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도움에 힘을 얻어 나는 서서히 용기와 소망이 조금이나마 어렵듯이 보이는 지점까지 다시 한번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성경과 물문경을 읽는 일에 흥미를 가졌으며 처음으로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단단히 붙들어야 할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나와서 우정을 인내심을 갖고 유지하였으며 몇 개월이 지나 가자 나도 그들을 환영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톰 벨슨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같이 찾아 왔으므로 우리는 매우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아이로니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만 하여도 우리는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방어하는 태세로만 지내며 말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인 회원이 되어 있고 신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신천사업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은 계속해서 발전하였고 하루는 감독이 나를 찾아 와서 제사 정원회의 서기가 되어 주겠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망설였으나 나는 감독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도 역시 전환점이 되었고, 정원회의 다른 회원도 나의 관점이 크게 변한 것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바로 이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 선교사 부름을 받아 떠나는 것을 보면 나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따라 갔으며 그들이 준비할 때 그들과 함

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큰 만족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 입장은 사실상 내게는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소홀하게 취급하였을 일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다하면 주님은 그의 약속을 지켜 주신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예능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으나 나는 주님께 의해 다시 이러한 능력을 얻었고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됨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고는 나에게 산, 일몰, 그리고 이따금 우리에게 허가되는 것등 인생에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사고는 나에게 주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엡 2:10 참조)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가 되었는데 이는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의 정경과 수많은 기적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또 누구나 아무리 가져도 지나치지 않는 바람직한 특성인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내가 터득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다



면 그것은 곧 훌륭한 것은 생의 역경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받았던 다음의 충고를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아들이 평안할지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교성 121:7-8)

비록 16세때의 내 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과학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생애 동안 지금까지 부딪혔던 모든 장벽에 기꺼이 맞서겠습니다. 환자용의 바퀴 달린 의자에 의지하여 7년간 앓은병이 생활을 하는 것이 또 다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진리로 인도해

준다면 나는 이 생활을 기꺼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소망이나 회개를 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언제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에서 용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교성 122:8)

나는 21회 생일날 장로에 성임된 후 신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을 때 내 생애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전의 어느 때보다 복음은 나에게 더 많은 의미를 던져 주고 있으며 만약 내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생활한다면 복음은 마치 생수의 샘처럼 약속된 대로 점점 솟아 올라 영생에 이르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젊은이로 하여금 그들의 육체

비록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 생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16세때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를 감사하고 이를 순결하게 간직하도록 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장벽”이라고 제목을 붙인 다음의 짧은 글을 인용함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앓은병이 된 몸이라 하더라도 영으로는 그는 걸을 수 있고, 눈 먼 사람일지라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영의 세계에 속한 사물을 볼 수 있으며, 비록 귀머거리라 하더라도 그는 회개를 외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고, 세월이 흘러 연로하게 된 사람일지라도 그는 복음 안에서 청춘으로 살 수 있네.

아, 벗들이여, 이러한 장벽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로운 생활을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이었는뇨? 〰

여러분의 책임

최근 선교부에서는 비활동 회원의 비활동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비활동 회원에 대한 조사를 착수 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147명의 비활동 회원의 회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80%가 침례를 받은지 1년 이내에 비활동화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침례를 받은지 6개월 이내에 비활동 회원이 된 사람이 무려 55%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우리들 교회 지도자 및 회원들을 총 망라한 교회의 성도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침례를 받고 그렇게도 빨리 교회를 떠나 갈까요?

과연 우리는 새로 침례받은 회원을 합당한 태도로 맞아들여 친구로 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우리들의 지부에 그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예언자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입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 세가지 사항을 반드시 베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가 지부의 회원으로써 지지를 받는 바로 그날 어떤 직책이든지 직책을 맡겨서 교회의 역원으로 불러야 합니다.

지부장은 침례를 받은 회원과 접견을 한 후 침례를 받은 즉시 어떠한 직에 부름을 주어야 합니다. 회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 교회에 새로 입교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이미 그 사람을 맡은 가정 복음 교육 교사가 정해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의 침례식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 십이세 이상의 남자 회원의 경우, 침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집사의 직에 성임 되어야 하며 이로서 그들이 성찬을 전달한다던가 안대를 맡는 다던가 그 밖에 지부장이 지시하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여 그들의 신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선교부장단으로서 지도자들이 영감으로 받아 제시한 세가지 사항을 예언자께서 가르치신대로 행사해 주기를 간절히 권유하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침례받은 후의 어려운 기간인 일년동안을 활동적으로 교회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들은 교회의 회원을 구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따르므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지부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교회를 찾아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좀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외부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하는 어떤 폐쇄된 모임이나 파벌을 삼가 해 주십시오.

“만일 너희가 온 생애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사람이라도 네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 : 15)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멘.

선교부장

엘 에드워드 부라운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3/11	주김정호	41	남	주주동	//	박창향	33	남	동동동	//	정윤성	18	남	동동동
//	김지진	36	남	주주동	//	김재호	26	남	동동동	//	세숙권	15	남	동동동
//	정백희	15	남	주주동	//	김하진	26	남	동동동	//	정찬은	21	남	동동동
//	김종영	16	남	주주동	//	김서진	20	남	동동동	//	박이오	48	남	동동동
//	고박창	24	남	주주동	//	김노이	18	남	동동동	//	홍양이	30	남	동동동
4/1	고박창	27	남	주주동	//	이정정	15	남	동동동	//	이조	19	남	동동동
//	김연도	22	남	주주동	4/22	김영주	18	남	동동동	//	이이	16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주용	16	남	동동동	//	이양이	10	남	동동동
//	김연도	20	남	주주동	//	김재운	35	남	동동동	//	이이	16	남	동동동
//	김연도	17	남	주주동	//	김재운	29	남	동동동	//	이이	17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3	남	동동동	//	이이	27	남	동동동
//	김연도	20	남	주주동	//	김재운	20	남	동동동	//	이이	19	남	동동동
//	김연도	14	남	주주동	//	김재운	23	남	동동동	//	이이	18	남	동동동
//	김연도	15	남	주주동	//	김재운	15	남	동동동	//	이이	18	남	동동동
//	김연도	11	남	주주동	//	김재운	12	남	동동동	//	이이	18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34	남	동동동	//	이이	21	남	동동동
//	김연도	24	남	주주동	//	김재운	20	남	동동동	//	이이	20	남	동동동
//	김연도	17	남	주주동	//	김재운	15	남	동동동	//	이이	19	남	동동동
//	김연도	20	남	주주동	//	김재운	12	남	동동동	//	이이	15	남	동동동
//	김연도	35	남	주주동	//	김재운	19	남	동동동	//	이이	12	남	동동동
//	김연도	24	남	주주동	//	김재운	37	남	동동동	5/12	이이	19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16	남	동동동	//	이이	21	남	동동동
//	김연도	28	남	주주동	//	김재운	14	남	동동동	5/13	이이	18	남	동동동
//	김연도	40	남	주주동	//	김재운	10	남	동동동	//	이이	14	남	동동동
//	김연도	14	남	주주동	//	김재운	30	남	동동동	//	이이	15	남	동동동
4/8	김연도	23	남	주주동	//	김재운	23	남	동동동	//	이이	15	남	동동동
//	김연도	19	남	주주동	//	김재운	16	남	동동동	//	이이	17	남	동동동
//	김연도	27	남	주주동	//	김재운	50	남	동동동	//	이이	21	남	동동동
//	김연도	54	남	주주동	//	김재운	12	남	동동동	5/19	이이	27	남	동동동
//	김연도	29	남	주주동	//	김재운	11	남	동동동	//	이이	19	남	동동동
//	김연도	28	남	주주동	//	김재운	20	남	동동동	//	이이	21	남	동동동
//	김연도	19	남	주주동	//	김재운	15	남	동동동	//	이이	16	남	동동동
//	김연도	20	남	주주동	//	김재운	24	남	동동동	//	이이	20	남	동동동
//	김연도	21	남	주주동	//	김재운	13	남	동동동	//	이이	17	남	동동동
//	김연도	24	남	주주동	4/28	김재운	17	남	동동동	5/20	이이	35	남	동동동
//	김연도	20	남	주주동	//	김재운	23	남	동동동	//	이이	12	남	동동동
//	김연도	19	남	주주동	//	김재운	19	남	동동동	//	이이	22	남	동동동
4/15	김연도	47	남	주주동	//	김재운	19	남	동동동	5/20	이이	40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3	남	동동동	//	이이	23	남	동동동
//	김연도	23	남	주주동	//	김재운	19	남	동동동	//	이이	23	남	동동동
//	김연도	30	남	주주동	//	김재운	25	남	동동동	//	이이	18	남	동동동
//	김연도	22	남	주주동	4/29	김재운	18	남	동동동	//	이이	18	남	동동동
//	김연도	28	남	주주동	//	김재운	32	남	동동동	//	이이	24	남	동동동
//	김연도	49	남	주주동	//	김재운	22	남	동동동	//	이이	24	남	동동동
//	김연도	17	남	주주동	//	김재운	33	남	동동동	//	이이	11	남	동동동
//	김연도	17	남	주주동	//	김재운	28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5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	김연도	18	남	주주동	//	김재운	27	남	동동동	//	이이	33	남	동동동
4/21	김연도	19	남	주주동	5/5	김재운	20	남	동동동	//	이이	44	남	동동동
//	김연도	19	남	주주동	//	김재운	18	남	동동동	//	이이	25	남	동동동
//	김연도	19	남	주주동	5/6	김재운	20	남	동동동	//	이이	39	남	동동동
//	김연도	19	남	주주동	//	김재운	20	남	동동동	//	이이	16	남	동동동
//	김연도	19	남	주주동	//	김재운	30	남	동동동	//	이이	42	남	동동동
//	김연도	19	남	주주동	//	김재운	28	남	동동동	//	이이	19	남	동동동
//	김연도	19	남	주주동	//	김재운	19	남	동동동	//	이이	18	남	동동동
//	김연도	19	남	주주동	//	김재운	19	남	동동동	//	이이	23	남	동동동

